

여서시대

양희은·김일중입니다

11월
2024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IBK기업은행 영창동지점 거래고객
미래아이산부인과 양원규 원장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IBK기업은행 서초3동지점 거래고객
바이오플러스(주) 정현규 대표



IBK 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기업은행이니까 유연도 믿고 맡깁니다

지난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고객과 기업 곁을 지켜 온
IBK기업은행

그 변치 않는 믿음을 알기에
인생의 마지막, 소중한 유산까지
맡기고 싶습니다

믿음직한 상속으로 내 뜻을 지켜주는
IBK 내뜻대로 유언대용신탁



믿을 수 있는 국책은행

63년 역사의 국책은행으로
장기간 신뢰할 수 있는 계약관리



내뜻대로 상속설계

내 재산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춤형 상속 설계



간편한 신탁계약

형식이 엄격한 유언장 대신
신탁계약 체결만으로 유사 효과



안정적인 상속집행

신탁 전문가와 함께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상속 집행

기업은행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2024-5979호(2024.10.15), 유효기간(2025.10.14),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심사필 제24-04197호(2024.10.16~2025.10.15) ※ 자세한 문익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 고객센터 ☎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는 금융상품(신탁계약)에 대하여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자산가치 변동, 시장금리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IBK 내뜻대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도 민법의 유류분 청구권이 보장됨에 따라 유류분 침해나 반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의 기본계약보수는 신탁원본의 0.5%, 집행보수는 신탁원본의 0.2~0.8%, 운용보수는 운용자산월 상이하여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p>04</p> 	<p>04 미담 디톡스 쓰담쓰담 ‘어머님의 소중한 인연’ 외</p>
<p>72</p> 	<p>12 이달의 편지 ‘남편의 버킷리스트’ 외</p> <p>72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미래아이산부인과 양원규 원장</p>
<p>76</p> 	<p>76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바이오플러스(주) 정현규 대표</p> <p>80 코너 속 편지 ‘팔찌가 이어준 사랑’ 외</p> <p>110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엄마의 흔적을 찾아서</p> <p>113 김일중의 스튜디오에서 속 깊은 이야기</p>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발행일 2024년 11월 10일 **발행인** (주)문화방송 대표이사 안형준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김일중 **프로듀서** 용승우, 전현지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01 **주소** (03925)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애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이경 **월간지**(비매품)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 전국 각 지역은 아래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창원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건설악) / 97.1(삼매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미담 디톡스 쓰담쓰담



우리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지요.
생각만 해도 잔잔한 미소가 떠올러지는 미담이 있으면
여성시대로 보내주십시오.
마음속 독소를 빼내고 쓰담쓰담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머님의 소중한 인연

김재원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로

안녕하세요? 출근할 때 여성시대를 자주 듣는 애청자입니다. 듣기만 하다가 방송국에 사연을 보내기는 60년 가까이 살아오는 동안 처음이네요.

얼마 전 어머니를 여의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아버지를 여의었을 때는 목직한 슬픔과 뭔가를 상실한 느낌이었는데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나시고 없다고 생각하니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슬픔이 밀려오고 문득문득 울컥울컥 무엇인가가 올라오네요.

어머니는 떠나셨지만 어머니로 인해 또 다른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었고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하여 글솜씨는 없지만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한평생 고생만 하셨고 마지막은 병원에서 1년 가까이 고생하시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장례식. 여러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많은 조문객을 맞으며 온 가족들은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문 마지막 날 밤 11시경 어떤 젊은 여자 조문객이 오셔서 어머니 영정 앞에서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손을 부르르 떨면서 문상을 처음 와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안절부절못하더군요.

분향하는 방법과 조문 절차를 설명해 주면서 무사히 조문을 마치게 하고 어떻게 조문을 오셨냐고 물으니, 어머니 병원 간호사인데 비번이라 쉬고 출근하니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도저히 안

올 수가 없었다며 울먹이는 그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져 어머니가 더욱 생각나 눈물이 나더군요.

조문객들이 계속 오셔서 일단 집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좀 챙기라고 한 후 다른 조문객들을 맞고 난 후 가보니 어느새 가버린 후였습니다.

그래서 부의 봉투를 확인하니 ‘이공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어 이름도 마음처럼 참 이쁘게 지었네 생각하며 집사람에게 어떤 사연인지 물었더니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그 간호사분에게 “우리 공주, 우리 공주~” 하면서 이빠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름이 ‘이다경’인데 부의 봉투에 ‘공주’라고 적어야 할머니께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이공주’라고 적었다고 하더군요. 그 마음이 너무나 예뻐지고 하고 ‘아! 어머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또 하나의 인연을 만들어 놓고 가셨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련해지더군요.

그렇게 보내 놓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시간이 가도 자꾸 뭔가 마음에 남아 문득문득 생각이 나더군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누님들도 아내도 다 그렇다고 합니다. 어머님 장례를 무사히 마치고 나서도 꼭 한번은 다시 만나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전화해 출근 날짜를 확인하고 면회를 신청해서 만나 뵙고 어머니의 힘들고 외로운 마지막 인생 여정에 함께해 주고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다고 조그마한 선물과 함께 한 번 더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농담으로 내가 딸이 없는데 맘대로 할 수만 있다면 내 딸하고 싶다고 했더니 쑥스러운 듯 그냥 “헤헤~” 웃기만 하더군요.

이다경 간호사님, 아니 어머님의 공주님. 공주님으로 인해 이 세

상이 너무나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는 것 같네요. 어머니의 이 세상 마지막 소중한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고 살아갈게요. 공주님의 앞날에 늘 행운과 복이 함께하기를, 하는 일 모두 잘되고 건승하기를 빌게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합니다.

손으로 느낀 한복의 아름다움

최세은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저는 서울맹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우리 학교는 영아부터 고등학생은 물론 중도 실명한 성인을 위한 직업 교육 과정과 학점 취득 후 전문학사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전문 전공 과정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교육하는 국립 시각장애 교육기관입니다.

올봄 제가 ‘한복이 예쁘고 아름답다고들 하는데 어디 가서 만져볼 수도 없으니 참 궁금하다’고 했더니 올해 입학한 학생 노원희 씨가 제 말을 듣고는 “지인 중에 한복 디자이너가 있는데 말씀드려서 한복을 만져도 보고 입어도 보고 그러면 좋겠네요” 하셨습니다.

한복디자이너 이선영 선생님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마침 한복 패션쇼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노원희 씨한테 제 얘기를 듣고 ‘만져보고 입어보는 일이 뭐 어렵겠느냐, 패션쇼도 같이 하자!’고 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과 교사도 한복 패션쇼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는 6월 말에 하기로 했으나 잦은 비로 8월 15일로 미뤄졌어요. 아시다시피 이번 여름은 무척이나 습한 무더위가 계속되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행사를 잘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물론 디자이너 선생님과 주최 측이 더 많은 걱정을 하셨겠죠.

아무튼 두둥! 드디어 8월 15일 행사일이 되었고, 저희 학생들과 함께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시각장애인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는 나라 사랑 태극기 한복 패션쇼 및 건국 사진대전’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저희는 저시력 및 전맹 학생 그리고 정안인 안내자들이 조를 짜서 행사 장소인 독섬에 있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안내센터에서 미용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메이크업과 올림머리를 했고, 이선영 선생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복을 손수 입혀주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많이 놀랐습니다. 디자이너 선생님은 주로 지시만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손수 한복을 입혀주고, 옷의 주름 하나 하나를 다려 잡아주고, 웃고름도 손수 매주고, 치맛단 끝도 일일이 다 펴주셨어요. 몸을 계속 구부렸다 폈다 왔다 갔다 우리 학교 여성 6명, 남성 8명, 총 14명을 일일이 챙겨주셨습니다.

저희는 아름답고 예쁜 한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모두 들떠서 다른 사람 한복도 만져보며 한껏 마음이 부풀었어요.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안내하며 분수대 앞 광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먼저 전문 모델들의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서로 사진을 찍고 누구 한복은 어떤지 듣고 또 모델들의 한복을 만져보느라 정신이 없었죠. 태극기, 한글, 독도, 한반도, 민화 등이 그려진 다

양한 한복을 만져보고 설명도 듣는 시간은 정말 의미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만으로도 감사한데 저희 시각장애 교사와 학생들은 전문 모델들의 안내에 따라 런웨이를 함께 걷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여기서 저는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중학생 김민준, 초등학생 곽진우 모델과 함께 걷게 되었는데 대기시간에 계속 자신의 휴대용 선풍기를 제 얼굴에 쐬어주며 “더우시죠? 조금만 더 힘내세요”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걸으면서도 “발밑에 선이 많아요. 조심하세요. 오른쪽으로 도세요. 이번에는 왼쪽으로 돌아요. 힘드시죠?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이제 하이라이트예요”라고 일러주기도 하고, “3시 방향 보세요. 11시 방향 보세요. 이번에는 정면을 보세요. 그쪽에서 사진 찍어요. 더워서 관람하는 분들이 적을 줄 알았는데 지금 많은 분이 저희를 보고 계세요. 자전거 타고 지나던 아저씨도 우릴 보고 계세요”라며 상황도 계속 설명해 주었습니다. 너무 어른스럽고 의젓하여 처음에는 성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3이라니요.

저는 이 행사에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사 끝나고 한복 벗고 뒷정리하느라 주최하신 분들과 이선영 선생님 그리고 모델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방송으로라도 저와 학생들이 정말 감사해하고 있으며 감동적이었다고 전하고 싶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 글에 저희가 느낀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지만 눈으로 보지 못하기에 직접 체험해야 하는 시각장애인들 사연을 듣고 행사를 준비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의 별명



[4384] 저는 '인간늘보'입니다. 아내가 답답하답니다. 행동도 느리고 말도 느리고 모든 게 느리다고요. 표정 변화도 없답니다.

[1246] 저는 지금 평창 농막에서 들깨 베며 여성시대 듣고 있어요. 친구들과 사이에선 '제비'로 통합니다. 제가 사교춤을 좀 하거든요.

[5744] '블랙 마니아'입니다. 올블랙은 사랑이죠. 우리 엄마는 맨날 장례식장 가냐고 그러지만 블랙이 짱 좋아요.



[3328] '오늘도 낚시 팡' 아빠입니다. 여성시대 잘 듣고 있어요. 남자들이여 낚시를 떠나자. 이번 가을에는 꼭 전어도, 대하도, 꽃게도 전부 잡을 거예요.

[길선종] 저는 회식하고 매번 늦는다고 아내가 '함흥차사'로 부르더니 요즘에는 거리 나가면 자꾸 정신없게 두리번 거린다고 '목도리도마뱀'이라고 별명이 바뀌었어요.



[3466] 교수연구실에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별명은 조기입니다. '이름에 조기가 들어간다고.'

[0936] 전 '뚜벅이 사랑'이라고 불리고 싶은 대구의 당당입니다. 아내가 운전을 못해 1년 365일 집안 운전기사 노릇을 하는 게 너무 피곤하네요.

생방송 중 도착한 문자 모음입니다.



- 12 남편의 버킷리스트
- 14 이런 사위 또 없습니다
- 18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
- 22 아들은 잘 성장하고 있었구나
- 26 냉장고의 발견
- 29 대안학교 수학여행
- 34 반려동물 천만 시대
- 37 나를 찾는 소리
- 41 식구가 또 늘었다
- 45 부역 작업과 기후 위기
- 49 동네 작은 우편취급국
- 51 조저스 레스토랑
- 54 소쩍새가 운다
- 58 따뜻한 부산



Letter 01

남편의 버킷리스트

이영희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남편이 지방에 있는 한옥 학교에 내려간 지 2주 정도 되었다. 하던 일을 정리하고 하고 싶었던 일을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응원하며 보내 주었으면서도 한동안 무기력해지는 것을 보면 남편이 그리운가 보다.

그동안 주말 부부로 살다가 올 초에 사업을 정리하면서 몇 개월 같이 붙어 지냈는데 없으니까 허전한 걸 보면 그래도 부부가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스스로를 달래며 소일거리를 찾거나 살림살이를 정리하기로 했다. 오래되고 낡은 남편의 수첩을 보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무심코 수첩 안을 들여다보니 거래처 주문 내역이랑 관련 업체 주소 등이 드문드문 적혀 있었다.

일하다가 급하게 받아 적은 흔적이 여기저기 보였다. 정갈한 글씨체

를 보니 남편의 꼼꼼한 성격이 보여 슬며시 웃어보았다.

그러다가 마지막 장에서 난 그만 울고 말았다. 남편의 버킷리스트가 적혀 있었다. 너무 소탈해서 어이없을 정도로 남편의 리스트는 소박했다.

1. 가축 키우기(남편은 시골에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있어서 거기에 살고 싶어 했다).
2. 산약초 키우기
3. 화덕에 고기 구워 먹기(시골에 화덕을 만들고 싶었나 보다).
4. 더불어 살기
5. 한옥 짓기
6. 7. 이 소원들은 이미 이루어져서 생략하고 싶다.
8. 영희 행복하게 해주기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버킷리스트라니….

물론 남편의 낮은 수첩만큼 오래전의 버킷리스트겠지만 적어도 그 때만큼은 누구보다도 날 사랑했을 남편이 느껴졌다. 갑자기 남편이 너무 보고 싶었다.

지난 세월 나한테 못했던 부분까지 전부 용서가 될 정도로 난 그 어떤 사랑 고백보다도 아름다운 남편의 고백을 오늘 들었다.

나의 버킷리스트에도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소원을 담아 본다. 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다.

Letter 02

이런 사위 또 없습니다

장모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저는 57년생으로 67세, 남편과 딸 둘,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우리 둘째 딸은 서울에서 대학교에 다니다가 박사 학위 따려고 유학 온 폴란드 출신 남성과 만나 국제결혼을 했어요.

우리 사위는 빅테크 회사에 다니는데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우리나라 문화, 음식, 한국어도 배워서 유창하지는 않아도 더듬더듬 어느 정도 우리말을 하는 편입니다.

딸 부부는 폴란드에 쭉 살다가 올해 휴가를 맞아 딸은 7일 전에 미리 와 있고 우리 사위 크리스는 2주간의 휴가를 보내려고 제주에 오게 되었지요.

딸로부터 사위 얘기를 종종 들었지만 이번에 매우 놀랐습니다. 사위는 집에 도착해서는 기다리던 우리 가족인 딸, 아들, 남편과 일일이 다정한 얼굴로 포옹하며 인사하더니 한국인처럼 우리 부부에게 거실

바닥에 무릎 대고 큰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익숙하지 않은 억양과 발음이지만 가슴이 뭉클하더군요.

‘어머나! 아무리 한국에서 학위 받으며 한국식 예의범절을 배웠다지만 이럴 수가!’ 하고 저와 남편은 마주 보며 놀랐습니다.

우리 집은 복층 구조여서 딸네 부부는 2층에서 지냈는데 본의 아니게 우리 사위 언행이 하나하나 다 보일 수밖에 없었지요. 2층으로 올라갈 때는 나무 계단이 소리 날까 봐 조심조심 발뒤꿈치를 들고 올라가더군요.

거실에 10년 넘은 TV가 있는데 브라운관이 낡아서 밑에서부터 10cm 정도 형광 빛이 올라오는 데 불편해도 감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위는 “아버님, TV 바꿔야 합니다. 저거 눈에 안 좋습니다!” 하는 겁니다. 남편은 한사코 괜찮다고 했지만 딸 부부는 외출하고 돌아오더니 새 TV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이틀 후 기존의 55인치를 넘는 83인치 TV를 한쪽 벽면을 다 가릴 정도로 설치했어요. 우리 아들은 설치된 TV를 보더니 “이것은 TV인가, 영화 스크린인가~” 하며 반색하더군요.

제주의 성산 일출봉, 동화마을, 용머리해안, 꽃자왈 등 유명 관광지를 돌던 어느 날 ‘9월 1일 일요일이 시대 집안사람들 별초하는 날’이라는 얘기를 듣더니 “아, 잘 됐습니다. 나도 별초 가고 싶습니다~” 하는 겁니다.

팀별로 4기를 별초하고 마지막에는 가족 공동묘지에 모여 9기의 모뎀 별초를 하기 때문에 작업량이 꽤 많지요. 외국에서 온 사위에게는 무리라 싶었습니다.

“날도 덥고 기계로 예초를 하지만 베어낸 풀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

두는 일이 아주 힘들 텐데” 하며 만류하자 “아닙니다. 우리 와이프 조 상님 얼굴은 모르지만 함께 가서 일도 돕고 만나고 싶습니다~” 하지 뭐예요. 사위의 단호한 표정에 남편도 그러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별초를 하러 갔지요. 시택 작은 아버님이랑 사촌 아주버님 들까지 우리 사위를 보더니 “아이고, 서울서도 안 왔는데 폴란드에서 제주까지 별초하러 왔구나!” 하며 모두 반갑게 맞아 주셨지요.

집안 충무 일을 맡은 아주버님께서 “이젠 해마다 와야 됩니다. 별초 멤버로 끼워 넣을 테니까요” 하고 한 발 더 내딛는 말씀은 하시는 바람에 모두 한바탕 웃었습니다.

저도 풀을 낮으로 다듬으며 사위를 보았습니다. 한시도 가만히 서 있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더군요. 덥고 습한 날씨에 땀으로 옷을 다 적 시면서 말입니다.

남편은 사위가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맛있는 식사를 저녁마다 맛 보게 했습니다.

어느 날은 우리가 약속 장소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한테서 일이 생겨 20분 늦으니 먼저 식사하라는 전화가 왔지요. 우리는 각자 수저를 들고 식사하는데 외국 사위 크리스는 손가락도 안 들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왜 식사 안 하고. 크리스, 식사해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버님 오면 하겠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오자 사위는 벌떡 일어서더니 “아버님, 이제 오셨습니까?” 하며 미소 띤 얼굴로 인사하는 겁니다.

오일장 날 할머니들만 모여 파는 ‘할망 장터’에 가서 감자를 사고는 제주말로 “고맙수다예!” 하고 말해서 할머니들을 즐겁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계속 얻어먹기만 했다고 어느 날은 자기가 요리해서 대접하겠다고며 쇠고기, 돼지고기, 파프리카, 감자 등을 사다가 3시간씩이나 걸려 '볼로네즈'라는 음식을 만들어 주더군요. 육류가 많이 든 야채수프 같은 요리인데 꽤 맛있더라고요. 아니, 그 정성에 맛이 없을 수가 없었지요.

우리 큰딸이 동생 부부에게 제주에서 특별한 추억을 안겨주려고 호젓한 곳에서 하룻밤 지낼 수 있게 숙소를 예약하고 가서 묵으라고 하자 “아닙니다. 5년 만에 부모님 뵈러 모처럼 왔는데 늘 함께해야 합니다~” 하고 정색하며 완강히 거절해서 큰딸도 혀를 내둘렀답니다.

딸은 한 달 뒤 폴란드로 가기로 했고 사위는 먼저 떠나게 되었는데 짐 다 챙기고 떠나기 전날 밤 처음 올 때처럼 큰절을 공손히 올리던 사위!

아들처럼 애뜻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사위를 두 딸과 배웅했지요. 항공권 발권하고 빠이빠이 손 흔들다가 사위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웅성거림과 소란스러움 대신 제주공항 내엔 공허함과 아쉬움만 가득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에게 큰 반향과 감동을 준 우리 사위 크리스! 건강히 잘 지내다가 새해에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랄게요.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Letter 03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

이정연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머리를 감으면 하수구가 막힐 지경으로 머리카락이 수북하게 빠진다.

“야! 머리카락아, 네가 낙엽이니? 벌써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하니? 잘 좀 붙어있어라.”

혼잣말을 하게 된다. 빗질할 때도 낙엽도 아닌 것이 낙엽처럼 훌훌 떨어져 내리는 머리카락이 나를 슬프게 한다. 염색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하나둘씩 빠죽빠죽 돌아나는 머리카락이 하양다.

“야! 너는 까만색으로 좀 나오면 안 되겠니? 왜 모조리 하얀색이니? 나는 아직 하얀색 네가 낯설다. 봐도 또 봐도 적응 안 된다고!”

염색한 머리카락 밑으로 하얗게 돌아나는 새치가 또 나를 슬프게 한다.

몸이 너무 피곤해서 종합비타민도 사서 먹어 보고 홍삼도 먹어 봤

는데 그래도 너무 피곤해서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란 다. 처방해 준 약을 먹기 시작했다. 갑상선 기능은 좋아지는지 모르겠지만 살이 피동피동 쩐다. 내가 적응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6개월쯤 지나니 체중이 20kg이 불었다. 예고 예고~ 맞는 옷도 없고 갑자기 늘어난 살 때문에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 배가 불룩해지고 다리도 아프고 발까지 퉁퉁 부어서 신던 신발도 작아졌다.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버겁다.

“살아, 살아! 내 살들아! 난 니들하고 좀 이별하고 싶다. 내 몸에서 조금만 사라져 줄래.”

두둑한 내 뱃살에 어디 있는지도 찾을 수 없는 내 허리가 나를 슬프게 한다.

어느 날 거울 속에 울 엄마가 나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서 놀랐다. 뺨글뺨글 파마머리에 눈가에 주름이 가득하고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는 거울 속에서 나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건 우리 엄마를 닮은 바로 나였다. 나도 엄마처럼 늙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이 나를 슬프게 한다.

어린 시절 엄마는 날씨가 싸늘해지면 늘 손가락이 갈라진다고 반창고를 붙이고 살았다. 우리 식구들이 대가족이어서 매일 손에 물을 마를 날이 없게 일을 해서 더 그랬을 것이다. 저녁이면 갈라진 손가락을 내밀며 반창고를 감아달라고 하셨는데 요즘 내가 가을로 접어들면서 손가락이 건조해지고 갈라진다. 안 닮아도 될 걸 나도 모르게 조금씩 닮아간다. 투박한 손가락, 밴드를 칭칭 감은 내 손가락이 나를 슬프게 한다.

평소엔 연락도 없다가 자기네 자식들 자랑거리가 생겼을 때만 전화해서 1시간 넘게 자랑을 늘어놓고 내게 힘든 일,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땀 위로의 말 한마디 문자 한 통 보내지도 않고 자기네들 간식거리처럼 모여서 이리 씹고 저리 씹고 나중에 다시 내 귀에 다 들려올 이야기를 맘껏 지껄여대다가 또 자기네 경조사 있다고 연락해 오는 친구

들이 나를 슬프게 한다.

나는 64년 용띠 올해 환갑을 맞이했다. 우리 남편도 나랑 나이가 같아서 올해 환갑이다. 지난여름 남편이 생일을 앞두고 남들은 환갑이라고 자식들이 외국 여행을 보내준다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 그럴 형편이 안 되니 속이 상한다고 투덜거렸다.

“아이가 들으면 어찌려고 그래? 조용조용히 이야기해. 여행 그게 뭐라고 자식에게 그런 걸로 부담을 줘? 재가 알바해서 받는 게 얼마나 된다고. 여행은 다음에 가면 되지. 이번엔 가족들 모여서 식사하는 걸로 해요. 그거면 되지. 뭘 더 바라겠어.”

그렇게 가족들이랑 식사할 장소를 미리 둘러보고 예약하러 갔다.

“어차피 나도 올해 환갑인데 같이 하면 안 돼?”

남편은 아무 말이 없다. 그건 싫다는 표현이란 걸 나는 안다. 그래서 아무 말 안 했다. 예약하러 갔더니 생일을 맞는 분에게는 미역국에 따로 특별한 한 상을 차려준다는 말을 들었다. 예약했고 시댁 대가족이 모두 모여서 식사를 했다. 남편은 특별한 한 상을 따로 받았다. 활짝 웃으며 축하의 말을 건네고 기분 좋게 식사했지만 뒷맛이 씁쓸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축하를 해주니 남편은 입이 귀에 걸렸다.

한 달 후면 나도 환갑인데 이왕이면 같이 기분 내고 같이 축하받으면 더 좋았을 것을 지나치게 혼자만 흥분하고 유난히 혼자 기분 좋아 하는 남편의 그 웃음이 나를 슬프게 했다.

“당신 생일엔 당신 형제들 다 불러서 식사하면 되지.”

너와 나, 선을 쪽 굵듯 뚝 잘라서 말하는 그 입이 알미운 그 말이 나를 슬프게 한다.

가을이구나 싶어서니 문득 학창 시절 국어책에 나왔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수필이 생각나서 적어봤다. 가을이니까.

Letter 04

아들은 잘 성장하고 있었구나

조진기 |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어느 순간부터 아들에게 ‘공부, 공부 말만 하고 놀아준 적이 언제였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고2 아들과 둘만의 데이트를 했어요.

요즘 친구들과 볼링에 푹 빠져있는 아들이 볼링을 190~200 친다고 하기에 제가 그랬죠.

“아들, 아빠도 볼링 제법 잘 쳐.”

“그럼 아빠 저랑 한번 치러 가실래요? 아빠 저한테는 안 되실 걸요.”

생각지도 못한 아들의 제안에 얼떨결에 그러자고 했어요. 둘이 가기 어색해서 아내한테도 함께 가자고 했더니 둘만의 시간을 보내라고 좋은 추억이 될 거라고 방해하기 싫다며 굳이 빠져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지는 사람이 게임비 내는 거예요. 콜?”

“그래, 쫌! 아들이, 니 용돈 탈탈 털릴 줄 알아라.”

저는 큰소리치면서 어색한 마음 반 설레는 마음 반으로 함께 볼링장으로 향했어요.

집에서는 무뚝뚝하고 방문 닫고 자기만의 세상에서 사는 아들인데 나와서 보니 아빠를 나름 배려할 줄 알고 말도 잘하는 아들이에요. 차가 다가오니까 저를 당겨서 위험에서 구해줄 줄도 알고 언제 이렇게 커서 아빠를 챙길 줄 아는 아들이 되었는지 이런 시간이 아니었으면 미처 몰랐을 것들을 느꼈습니다.

주말이라 볼링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젊었을 때는 볼링장에서 살다시피 한 저였는데 사는 게 뭐 그리 바쁘다고 이런 여유도 못 느끼며 살았나 싶었어요.

그리고 볼링장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많아서 1시간 대기해야 한다고 해서 어찌나 했는데 아들은 그게 일상이라며 주말은 기본 1시간 대기라고 작은 오락 기구가 있는 곳으로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농구대에 공 넣는 게임도 함께하고 오락게임기 앞에서는 아들과 쪼그리고 앉아 다 큰 아들에게 지지 않겠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에는 ‘인형 뽑기’만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 ‘키링 뽑기’가 있더라고요. 아들이 키링을 하나 뽑아서 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우와~ 우리 아들, 완전 키링 뽑기 실력자!” 하며 감탄했더니 “제가 여기다가 쓴 돈이 얼마데요” 하네요. 아, 그 기계가 우리 아들 용돈 잡아먹는 기계였던 겁니다.

아들하고 볼링을 시작했는데 우리 아들 실력이 만만치 않아요. 첫 판은 가볍게 150 대 150으로 무승부. 두 번째 판은 160 대 170으로 제가 아들에게 졌어요. 아들이 어찌나 저를 놀려 대는지 제 승부욕이

불끈불끈 솟아올랐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판은 180 대 170으로 제가 승리했어요.

네 번째 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아들 친구들 4명이 우르르 몰려와서 인사를 하네요. 아들이 어떤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지 몰랐는데 아들 친구들 얼굴도 보고 참 좋았습니다.

마지막 판이라고 하니까 아들 친구들이 뒤에 서서 구경하는데 어찌나 부담스러운지요. 아빠 체면을 구길 수 없어서 어깨에 힘이 바짝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제가 189를 쳤어요. 아들은 175를 치고요.

아들 친구들이 “아버님 짱! 아버님, 우와~ 멋있어요~” 하는 바람에 저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속으로는 ‘에효효~ 창피 안 당해서 다행이다~’ 싶었죠. 제가 잘 쳐서 자기 친구들에게 칭찬받으니 기분이 좋은지 아들은 저 놓고도 싱글벙글하더라고요.

아들 친구들을 봤는데 그냥 갈 수 없어서 음료 어떤 거 좋아하느냐고 물었더니 ‘얼박’을 좋아한대요. ‘얼박’이 뭐냐고 했더니 ‘얼음에 피로회복제를 타서 먹는 거’래요. 요즘 애들은 그렇게 해서 먹나 봐요. 아들 친구들에게 그 음료를 전해주니 덩치는 산만한 아이들이 좋아하며 감사 인사도 90도로 허리 굽혀 해주고 행복하게 받아줘서 저도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친구들과 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아빠는 집에 혼자 갈 테니 놀다 오라’고 했는데 아들은 친구들에게 ‘아부지 모셔다 드리고 오겠다’고 하고는 저를 집 앞까지 바래다주는 게 아니겠어요. 아빠 혼자 가게 하기가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하네요. 아들에게 다음에도 데이트 하자고 했더니 좋다는 아들. ‘이게 행복이지!’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함께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지 처음 알았고



아들이 저에게 거리를 둔 게 아니라 제가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게 아니었나 반성도 했어요.

이번 데이트로 아들의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 걱정과 달리 우리 아들은 친구들과 잘 지내고 정신도 몸도 건강하게 멋지게 잘 성장해가고 있는 것 같아 흐뭇한 하루였습니다.

Letter 05

냉장고의 발견

애청자

나는 매사에 급한 것 없이 느긋하고 무던하고 미련 곰탱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 집 주방에 버티고 있는 냉장고 냉동실 아래로 물이 흘러나와 바닥이 흥건해져도 '그러려니' 여기며 '냉장고 나이 15살쯤이면 그럴 수 있지. 까짓 물 좀 흘러나오면 어때. 아직은 소음도 없이 썩썩 잘만 돌아가는구만' 이렇게 생각하며 수건 한 장 깔아놓고 오가며 발로 한번씩 쓱 닦아주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런데 일이 터졌다. 어느 날 냉동실 문을 열었더니 불빛은 환하게 살아있는데 그 안에 있던 모든 음식이 방울방울 물방울을 달고 축축한 냉동실 안에서 흥건히 녹아내리는 참이었다.

아이스크림은 진득한 물주머니가 되었고 아꼈던 청국장이며 냉동 만두, 냉동 피자, 냉동 새우, 냉동 양송이, 다져서 얼린 마늘, 생강 채,

손두부, 블루베리, 버섯류와 빵, 층층이 쌓아둔 시판용 갈비탕에 양념 불고기까지. 아아~ 그야말로 냉동실 안에 빈틈없이 채워져 있던 음식들이 볼품없는 모양새로 주저앉아 그 탄탄했던 형체들은 물주머니가 되어 출렁이고 있었다.

그동안 왜 이리도 냉장고 안에 빈틈없이 층층이 쌓아 올리며 저 많은 것들을 바리바리 보관하며 살았을까 나는 자책했다.

그야말로 나의 냉동실은 심각한 동맥경화를 앓고 있었으며 바닥으로 물까지 흘러보내며 내게 SOS를 청했으나 나는 그 신호를 무시했던 것이다.

결국 나의 음식들은 쓰레기통 안으로 직행해야 할 판국이고 당장 해야 할 일은 냉동실 안을 과감하게 비워내는 일이었다.

결국 나는 냉동실 안에서 존재감을 잃고 구석구석 숨어 지내던 음식들을 끌어내려 버릴 건 버리고 살릴 건 살리는 재생 호흡법을 실시하고 냉동실 안에 서리서리 맺힌 얼음 알갱이와 물기를 닦아내고 서랍과 선반은 분리하여 물로 씻어내고 닦아서 어긋난 관절들을 끼워 맞추듯 제 자리에 끼워 넣었다.

토요일 아침 6시부터 그 많은 음식 더미를 꺼내 킁킁대며 냉동실 정리를 시작해서 오후 2시에 마치고 나서 냉동실 문을 다시 열어보았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놀라운 광경을 발견한 것이다.

수명이 다한 줄 알았던 냉동실 안은 새로운 불빛을 발산하며 조용한 호흡을 토해내며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야말로 졸도 직전의 냉동실이 스스로 심폐 소생을 했다고나 할까.

더 이상 움직여주지 않을 것 같았는데 닦아주고 치워주고 나니 그 제약 편안하게 숨통을 트기 시작한 나의 냉동실은 환한 불빛을 켜고 새근새근 자가 호흡을 하며 나를 기쁘게 했다.

당장 새 냉장고를 구입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는데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가득 채워진 냉장고가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냉장고의 적정온도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는데 냉장고를 사용할 때는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되었다.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브랜드는 냉동실은 -18~19도, 냉장실은 3~4도가 적정온도인데 나는 냉동실은 -23도, 냉장실은 0도에 맞춰둔 것조차 모르고 지금껏 냉장고를 혹사시켰다는 점과 계절별 차등이 있다는 것도 이번 우리 집 냉장고의 파업 소동을 겪으며 알게 되었다.

냉장고 안을 보면 그 집 주부의 살림 솜씨를 엿볼 수 있다는데 나는 이제야 깨닫는다. '가득'을 '가벼움'으로 바꿔줄 때 비로소 냉장고는 만만한 음식물 보관소가 아니라 살아 숨 쉬는 생명체 같은 기계가 된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이 적정 체중과 적정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듯 냉장고 역시 적정온도와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나는 냉장고와 기분 좋은 화해의 약속을 하고 쓰담쓰담 톡톡톡 애지중지 냉장고와 잘 지내보기로 마음 먹었다.

Letter 06

대안학교 수학여행

우명식 | 경북 안동시 전거리길

오늘은 나섬 학교 전교생 13명이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는 날입니다. 절대 늦지 말라고 당부했건만 버스는 곧 출발해야 하는데 아이들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몸이 달아 학생에게 전화하기에 바빴지요. 형이는 잠에 취한 목소리로 겨우 대답하고, 머리 말린다는 혁이는 전화 받자마자 매정하게 툭 끊어버립니다. 금방 일어났다는 민수는 단말마 같은 비명을 지르며 자기도 꼭 데려가야 한다고 무조건 기다리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우리 학교 풍각쟁이 윤이는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연락되지 않아 선생님 애간장을 태우고 있었지요. 시계를 보고 있는데 콜택시를 타고 나타난 윤이는 해맑게 웃으며 여유 있게 버스에 오릅니다.

바깥세상이 두려워 안으로 안으로만 숨던 아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못 말리는 귀여운 악동들과 생활

하면서 날마다 인내를 배우고 있습니다.

작년 새내기 일꾼으로 부임해서 아직 교장이라는 직함은 어색하고 아이들과 친구처럼 지낸 13년 차 국어 선생이 저에게는 훨씬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귀찮게 하고 괴롭히는 아이들 덕에 영적인 근육을 견고하게 키우고 있으니 악동들은 저의 스승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안동에 자리한 위탁형 대안 고등학교입니다. 전교생이 13명인 작지만 특별한 학교입니다. 저마다 아픈 사연 하나씩 간직하고 아이들은 우리 학교에 들어옵니다. 따돌림을 견디지 못해 찾아온 아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퇴학 위기에 처한 아이, 가정폭력에 시달려 만신창이가 된 아이, 마음이 아파 정신과 약을 먹고 멍한 표정으로 하염없이 울던 아이. 깊이를 알 수 없는 인생의 바다에서 만난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작은 문구를 빼곡하게 마음에 새기고 제발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학교가 싫어요, 꼭 안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세상 고뇌를 다 짊어진 아이들 내면의 소리가 어느새 심장에 박혔습니다. 마음의 문을 수없이 두드리며 아이들의 불량한 눈빛과 거친 행동을 조금씩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절대 대학에 가지 않겠다는 아이들에게 자기 적성을 찾아 대학 진학의 꿈을 꾸게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앞을 떠나 파란 하늘이 기다리는 자연으로 갈 준비를 마치고 우린 드디어 대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탑승 수속을 하고 비행기에 올랐지요. 수업 시간에 자주 졸던 아이들이 눈을 빛내며 비행기 창을 통해 바라본 풍경에 빠져듭니다. 새로운 산과 강, 나무, 하늘을 만나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잃었던 꿈을 찾고 나를 들여다보는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귤과 당유자가 익어가는 제주는 아름다웠습니다. 토속 음식으

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아쿠아플라넷으로 향합니다. 개성이 강한 아이들이라 일탈이 염려스러워 선생님들은 바짝 긴장하여 촉수를 세우고 행동을 살핍니다. 작은 바다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아름다운 아쿠아플라넷에서 바다 생물의 신비를 보았습니다. 바다사자와 한참 눈을 맞추며 바라보던 윤이 얼굴이 환합니다. 제주 해녀의 물질 시연을 보면서 아이들은 모처럼 진지합니다. 물 밖의 삶과 물속의 생을 오가며 기계장치 없이 오로지 맨몸으로 바닷속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녀의 삶을 아이들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호텔에 여장을 풀고 우린 방을 정했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 따로조를 짜서 편한 친구랑 같은 방을 쓰기로 했지요. 방 배정을 하다 보니 윤이가 저랑 한방에서 자야 됐습니다. 예상대로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윤이가 입을 삐죽이며 소심한 항의를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수학여행 와서 선생님과 함께 잔다는 말은 처음 들어 봐요.”

반응을 예상했던 저는 세상 부드러운 얼굴을 하고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어떡하니. 네가 좀 참아줘. 그런데 난 윤이랑 잔다고 생각하니 너무 좋은데 어찌지?”

윤이는 눈을 흘기며 피식 웃었습니다.

잠자기 전에 넓은 곳에 모여 게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나눠 먹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밤이 깊어졌습니다. 10시에 취침하기로 약속했는데 무언의 눈짓을 주고받던 악동들은 평소에 하지 않던 애교까지 부리며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생떼를 썼습니다. 모질게 거절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1시간만 더 주는 대신 조건을 달았습니다. 음주는 절대 안 되고 밖에 나가는 건 더욱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전 교장 선생님이 들려준 일화가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수학여행 왔을 때 여학생이 몰래 나가 술 먹고 오토바이를 타고 차와 충돌했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는 아찔한 말이 떠올라서 초긴장 상태로 아이들을 지켜봤습니다. 1시간 후 아이들과 함께 자리를 정리하고 각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달빛이 하얗게 쏟아지는 밤 윤이와 나란히 누웠습니다. 은은하게 비치는 달빛 탓인지 윤이는 나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엄마는 재혼해서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아버지는 폭력을 일삼아 마음 둘 곳이 없어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사건 사고를 일으켜 본교에서 골치 아픈 아이로 낙인찍혀 학교 가기가 싫었다고 했습니다. 심리적 불안감은 무기력으로 이어져 오랫동안 우울증약을 먹고 있다고 조곤조곤 털어놓았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줄게.”

윤이의 지친 영혼을 기댈 수 있는 비밀스러운 안전 기지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이 몸이 파르르 떨리고 어깨가 들썩입니다. 아픔을 숨기려고 악을 쓰던 윤이 모습이 떠올라 명치끝이 저릿합니다. 상처가 아니어도 아픈 밤입니다. 소리도 없이 울어야 하는 그런 밤입니다. 씩씩하게 그리고 두려움 없이 어둠 속에서 맞잡은 마음이 있다는 걸 윤이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젖은 슬픔을 바짝 말리고 여행에서 돌아올 때 윤이와 나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공유하고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위탁형 대안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생활하는 교사입니다. 자신의 꿈을 향해 노력하는 학생들을 도담이며 작은 위안과 사랑을 아낌없이 주고 있습니다. 위탁형 대안학교를



잘 몰라서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바로 자퇴하는 일이 많아 안타까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위탁형 대안학교는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위탁받아 교육하는 대안학교입니다. 이곳에서 졸업하면 검정고시를 따로 보지 않아도 원래 다니던 본교 학력을 그대로 인정해 준답니다. 학생들이 예술 계통이나 자기가 원하는 학과를 가기 위해 좀 더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와 가족같이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적성에 맞지 않는 공부로 겪는 우울감, 힘든 교우 관계, 집단 따돌림, 복잡한 가정환경 등으로 학교 밖을 떠도는 청소년이 되는 게 너무 마음 아파서 이런 학교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사연 보냅니다.

Letter 07

반려동물 천만 시대

손삼순 | 충남 태안군 원북면

요 즘 나의 일상은 대소변 처리로 시작하고 끝이 난다. 먹고 싸고 자는 일에 진심이 되었다. 반려견인 진돗개가 아프기 때 문이다.

도시에서 읍내로 이사 오고 집을 새로 짓는 변화의 시간을 함께했고 산골의 낯선 환경과 위협에서 진돗개의 용맹함과 충성심이 최고로 빛을 발했다. 멧돼지도 도망칠 정도였으니 반려견인 15살 수컷 '진도'의 활약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다.

임야와 바다를 내달리며 영역 표시를 하던 반려견은 이제 은빛 흰색 털을 지닌 채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버지의 노년이 생각났다. 파킨슨병으로 몸이 떨리고 걸음을 제대로 못 걸으셨다. 그토록 고결하고 깔끔하시던 아버지의 달라진 노후를 보는 일은 가슴 저미는 통증이였다.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휴일

이면 어머니와 교대해서 간병했다. 책도 읽어 드리고 퇴원 후에는 함께 살자며 장밋빛 미래도 그렸다. 아버지의 고른 숨소리에 깜빡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화장실에 가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나왔는데 복도가 소란스러웠다. 여윈 아버지께서 걸음마 하는 아이처럼 종종걸음을 걷고 계셨다. 한 발 한 발 움직일 때마다 변이 흘렀다. 달려가서 아버지를 부축했다. 눈물이 쏟아지려는 걸 겨우 참았다.

“아버지, 천천히 천천히 걸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버지는 말없이 화장실 쪽으로 걷는 일에만 집중하셨다.

“간호사님, 환자복 한 벌 주십시오.”

따뜻한 물로 씻겨드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나오니 복도가 말끔히 청소되어 있었다.

“아버지, 힘드시죠? 쉬고 계세요. 간호사들에게 음료수라도 사다 주고 올게요.”

“그래라.”

그때 알았다. 관계만 제대로 쌓아놓으면 육신의 쇠락이 삶의 질을 아무리 떨어뜨릴지라도 사랑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르다. 내가 노년의 몸이라 많이 아프다. 게다가 케어 대상이 동물이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지만 우리나라의 법과 사람들 의식은 급속히 성장한 경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다양한 세대가 섞여 살고 있다. 일제 강점, 전쟁, 절대적인 가난을 겪은 세대에다가 나 같은 베이비부머 그리고 MZ세대까지.

이곳은 어촌형 산골이다. 복날이면 개를 잡아먹는 풍습과 개를 안고 방문하는 후손이 공존한다.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은 대외적으로

드러내도 문제가 없을뿐더러 칭송과 동정을 받기도 하지만 반려견을 돌보는 일은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자칫하면 비정상적으로 보이기 십상이다.

이웃 할머니가 말했다.

“개 늙으면 더러워서 못 봐줘. 개장수한테 팔고 강아지 새로 사서 키워!”

할머니 말도 사실이다. 이젠 털이 빠져도 새로 돋지 않고 드러난 맨살은 흉하다. 물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나 ‘생명의 저울에 올리면 왕과 참새 한 마리의 무게가 똑같다’는 동화처럼 내 생각도 그렇다. 인연이 된 것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아픈 생명을 돌보는 일은 이중고다. 육신의 수고는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인 고통이 만만찮다. 눈앞에 물을 두고도 가져다주지 않으면 먹지 못한다. 털 하나라도 스치면 알아차릴 정도로 예민하던 성격이 온몸을 들추시며 이리저리 뒤집어도 가만히 있다.

반려견인 ‘진도’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 내면 인생살이에서도 한층 더 담대해지겠다는 생각이 든다. 식구들에게 유난히 마음이 여린 내게 아픈 반려견 돌보는 일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라는 신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커피로 간밤의 피로를 풀고 있는 내 곁에서 반려견 진도는 잘도 잔다. 망중헌! 잠깐의 호사를 누리고 있지만 나를 기다리는 일이 또 산더미다. 에효~.

Letter 08

나를 찾는 소리

문종화 | 대구광역시 달서구

낚시 장비를 꺼내는 내 뒤통수에 대고 아내는 작심한 듯 쏘아 붙인다.

“또 가나? 매번 힘들다면서 왜 가는지 이해가 안 돼.”

원래 낚시를 알기는 했어도 이렇게 매주 갈 정도는 아니었다. 낚시에 푹 빠지게 된 것은 동네 친구를 만나고부터다. 그 이후로는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딸아이가 놀이공원에 가자는 부탁도 아내가 마트에 장 보러 가자는 요청도 무시하고 매주 밤낚시를 다녔다.

“합천호에 4자 월척이 잘 나온다는데~”

들뜬 목소리로 조우(釣友)가 연락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훅 치고 들어온다. 주말을 손꼽아 기다리며 머릿속은 온통 낚시 생각으로 가득하다. 벌써 칠혹의 잔잔한 수면 위로 솟아오르는 찌가 어른거린다. 파란 수면에 자리 잡은 파라솔도 보인다. 마음은 이미

콩밭에 있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대충 일을 마무리하고 동네 슈퍼에 들린다. 즉석밥과 라면, 환상적인 밤을 같이할 소주와 맥주를 단단히 챙긴다.

핀잔을 들으며 트렁크에 실어 둔 장비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자동차 액셀 페달을 밟는다. 낚시터에 도착하면 마음이 급하다. 물속에 있는 고기가 다 도망이나 가나? 등쪽에도 양손에도 한가득 장비를 챙겨 포인트로 진입한다. 얼굴에는 온통 땀이 흐르고 양팔도 얼얼하다. 그야말로 짐꾼이나 다름없다. 그래도 기분은 설렌다.

바닥이 평평하고 마른자리를 찾아 낚시채비를 마친다. 트렁크 어딘가에 처박혀 있던 대나무 방석도 의자에 깔았다. 시원한 맥주 한 캔을 마시며 이제 밤을 지겹도록 기다린다.

기다리던 밤이 온다. 불빛 하나 없는 호수, 바람도 없고 어둠과 적막뿐이다. 장마철이라 밤공기도 매우 습하다. 모심기를 마친 논두렁 사이로 도랑물만 졸졸 흐른다. 간혹 소쩍새 소리도 마음을 헤집는다. 야광용 케미라이트를 찌툼에 쫓고 낮에 봐둔 수초 구멍에 낚시대를 던져 넣는다. 고기와의 기다림이 시작된다. 한 시간을 기다려도 찌는 미동도 없다. 부채꼴로 밝힌 야광찌를 보면서 끝없는 물명을 한다.

문득 허전하며 시장기가 생긴다. 버너에 코펠을 올리고 라면을 끓여 저녁을 준비한다. 밤낚시에서 먹는 라면은 정말 환상적이다. 소주와 맥주를 적당히 조합한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청량감과 알뜰뜰한 맛에 이곳을 찾는지도 모른다. 취기가 생기니 기분도 좋다. 세상 근심이 사라지는 마법이 나타난다.

미끼를 끼워 다시 던지고 챔질하기를 반복한다. 입질은 계속 없다. 서서히 지루해질 즈음 주위를 살펴본다. '사각'거리며 들려오는 바짓가랑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봤다. 갑자기 무섭증이 든다.

혹시 들짐승인가? 사람이다. 험령한 바지를 무릎까지 걷어 올린 노인이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온다.

“고기 좀 나오니까?”

이 동네에서 조그마한 낚시용품과 편의점을 운영하는 주민이었다.

“지금은 물 수위가 높아져 낚시가 잘 안될 텐데 오늘 조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와 봤지요.”

노인께 소주 한잔을 권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노인은 자리를 떠났다.

또다시 빨간빛의 찌를 무심코 쳐다본다. 보통 대물 고기의 입질은 찌가 끝까지 솟구쳐 오른다. 깊은 밤 솟구치는 야광찌의 모습은 황홀하다. 가슴 두근거리는 감동을 느낀다.

오름 수위 탓인지 펼쳐둔 4대의 낚시대와 찌는 요지부동이다. 오늘 은 그 모습을 보기가 어려울 듯하다. 그런 생각이 들자 따뜻한 커피 한잔 생각이 든다.

그때였다. 왼쪽 두 번째 낚시대와 찌가 스르르 올라온다. 몸통까지 솟구쳐 오른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가슴만 쿵쿵거린다. 힘껏 챔질을 했다. 3칸 반 카본 낚시대와 초릿대가 활처럼 휘면서 “핑핑” 소리를 낸다. 손끝에 전해오는 묵직한 느낌! 큰놈이 분명했다. 일추 10분을 버티며 저항한다. 이 순간 짜릿한 손맛은 느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물 밖으로 나온 녀석은 황금빛 비늘이 아름다웠다. 눈대중으로 보니 턱걸이 월척에 토종 붕어였다. 가파른 산의 정상에 선 성취감처럼 마음이 뿌듯하다.

‘월척이 나오려고 밤부터 소쩍새는 그리 울었나 보다.’

실없이 나에게 물어본다.

낙시는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나를 찾는 시간이며 기다림의 철학이다. 인내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열매가 꽃보다 빠를 수는 없다는 말을 새삼 공감이 들게 한다.

밤은 자꾸 깊어가지만 더 이상의 입질은 보이지 않는다. 밤이 깊으니 기온이 떨어진다. 준비해 온 보온 담요를 펼쳐 덮는다.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 달이 발등을 희미하게 비춘다. 의자를 눕혀 다리를 뻗어 본다. 밤이 숨겨둔 산릉선이 희미하게 보인다.

눈을 뜨니 날이 밝았다. 펼쳐 둔 낙식대는 밤이슬 덮고 같이 잠을 잔 모양이다. 움직임과 흔들린 흔적도 없다. 하늘은 옅은 파란색이 물들었다. 밤새 고요했던 물결 위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어 반짝이기 시작했다. 멀리서 새들의 문안 인사도 들린다. 호수의 물안개가 피어오르며 물안개 속에서 햇살이 뿔어져 나와 몽환적인 그림을 그린다. 주변의 나무들도 서서히 생기를 되찾는 모습에 나도 잠에서 깨어난다.

철수할 준비를 한다. 파라솔을 걷고 낙식대에 내린 이슬을 닦아낸다. 쓰레기도 모아 주변 정리를 한다. 이제 차로 돌아갈 길이 아득해진다. 그래도 미끈한 호수와 하룻밤 진탕 놀아 놓고 힘들다고 불평하면 안 된다. 토사구팽이란 고사성어가 딱 제격이다.

“아빠! 어젯밤에 어디 갔다 왔어?”

초등학교 1학년 딸이 초췌해진 물골로 깊은 잠에 빠진 나를 흔든다.

10년도 더 지난 아득한 옛날 일이다. 창고에는 해묵은 낙시 장비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핑핑” 낙식줄 소리가 가끔 들린다.

Letter 09

식구가 또 늘었다

서희원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새벽 12시 살살 진동이 오기 시작한다. 예정일까지는 아직 열흘이 남았기에 가진통이라 예상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잔잔한 찬양 BGM을 틀고 노란 조명을 준비한다. 짐볼에 올라 몸을 풀다 보니 웬지 진짜 진동이 찾아온 것 같은 직감이 든다.

새벽 2시 반, 세상모르고 자는 남편을 깨우니 30개월 막내아들이 같이 깨어난다. 남편은 부스스 일어나 조산사님께 연락드리고 진통 시간을 체크하는 앱을 켜서 경과를 타지에 계신 조산사님께 알렸다. 조산사님은 갑작스러운 가족상을 당하셨기에 다른 조산사님을 보내 주신다고 하셨다. 혹시 늦으시면 어쩌지 조금 걱정이 되었다.

우선 남편과 함께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미역국 끓일 불을 올린다. 나는 혼자 누웠다 엎드렸다 하며 진통을 흘려보낼 편한 자세를 찾는다. 곧이어 신랑과 춤도 추며 진통을 받아낸다. 막내는

자동차를 가지고 놀며 ‘엄마가 갑자기 왜 이리 아파 하나’하는 표정으로 순진무구하게 쳐다본다.

계속되는 진통 소리에 새벽 5시쯤에는 첫째 딸, 둘째 딸도 깬다. 진통은 이제 최고조를 향해 가는데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니 살짝 정신이 없어진다. 뭔가 눈 돌릴 거리가 필요해서 노트북으로 원하는 만화를 보여줬다. 우리는 TV가 없다. 엄마는 진통 중인데 아이들은 좋아하며 뚫어져라 만화를 본다. 귀엽기도 하다.

진통은 정말 뭐랄까 낳을 때마다 새로운 경험이다. 막 진통이 시작됐을 땐 힘을 줘야 하는 타이밍을 잘 못 잡다가 어느새 자연스럽게 진통 주기에 맞춰 힘을 주는 내 모습에 ‘아, 역시 내 몸이 잘 알고 있구나’ 싶었다. 그렇게 수십 번의 진통을 보내다 문득 이번엔 진짜로 뭔가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 이제 때가 무르익었구나’ 싶더니만 잠시 뒤 아기 머리만 뿔 튀어나왔다.

자연주의 출산에서 산과를 돕는 사람을 ‘돌라(Doula)’라고 한다. 지금까지 세 번의 출산을 함께한 나름 경력직 ‘돌라’인 남편이지만 아기 머리만 툭 튀어나온 광경을 마주하니 꽤나 당황한다. 남편이 상기된 표정으로 큰딸 고걸이를 부른다.

“고걸! 식탁에! 아빠 휴대폰 좀 가져와! 빨리!”

다급한 아빠 목소리에 심각한 상황인 걸 알아차린 큰딸은 만화를 뒤로하고 휴대폰을 들고 재빨리 뛰어온다. 후에 남편이 회고하기를 녀석이 무척 기특했던 순간이란다. 그 후 남편이 조산사님과 통화하던 격양된 목소리가 생생하다.

“선생님! 머리만 나왔는데요. 얼굴이 새까맣습니다. 피가 안 통하는 걸까요? 숨을 못 쉬는 걸까요? 잡아 빼낼까요?”

많이 당황했는지 아가가 아직 탯줄로 호흡한다는 사실도 잊었나 보



다. 선생님은 담담하게 대답하신다.

“거의 다 나왔어요. 다음 진통 기다리세요. 억지로 빼내면 쇠골 부러져요.”

나도 담담하게 얘기해준다.

“다음 수축 때 힘줄 거야. 그럼 나와~”

셋째까지 자연주의 출산을 해온 나의 느낌적인 느낌이 그랬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6시 23분 진통 6시간 만에 넷째가 뽕 나왔다. 조산 사님 말씀 따라 딱딱딱한 아가를 돌본다. 양수를 빨아들일 스포이

트는 없지만 대신 등을 문질러주라 하신다. 그대로 하니 어느 순간 앙~ 하며 울음을 터뜨린다.

‘건강하구나, 다행이야!’

아가를 안고 젖부터 물린다. 작고 귀엽고 따듯하다. 긴장이 풀리며 피로가 몰려든다. 누나 둘과 이제 막 승급한 형아도 쪼르르 달려와 아가를 쳐다본다. 모두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로운 존재와 먼저 태어나 살아가던 가족의 조우. 아이들이 많아지니 더욱 농도 짙은 감격이 밀려드는 순간이다.

1시간 정도 아이와 교감을 나누다 보니 처음 뵈지만 구면인 것 같이 반가운 조산사님이 도착하셨다. 조산사님의 안내에 따라 다음 수축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 태반도 무사히 출산(!)한다. 열상도 없고 출혈도 적고 너무나 깨끗하게 출산했다며 조산사님이 농담으로 남편을 산파로 임명하신단다. 아기를 배에 올려두고 교감하는 쟁거루 케어도 하고, 머리둘레-키-체중 측정을 마친다. 잠시 뒤 태맥이 멎고 아빠와 둘째 딸이 함께 탯줄 커팅식까지 마무리한다. 출산 과정을 마치고 새벽부터 부랴부랴 서둘러 달려오신 조산사님께 간단한 요기 거리를 차려드리고 가시는 길을 아이들과 배웅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제각각 일상으로 복귀한다. 초등학교 1학년 첫째는 스쿨버스 타러, 6살 둘째는 집 가까운 병설유치원으로, 4살 셋째는 일찍 일어난 탓에 아침잠을 한 번 더 재우고 어린이집으로. 휴~ 참으로 정신없는 아침이었다. 그리고 막내는 내 품에서 젖을 문다. 고생했다. 나도 너도.

이제 얼마 후면 막내 백일이다. 그저 하루를 건강히 웃으며 살아내고 있는 우리 식구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들. 그 자체가 정말 감사하다.

Letter 10

부역 작업과 기후 위기

신동훈 | 충북 충주시 금릉로

작년에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는 주말에만 시골집에 가는 편입니다. 오래 비워두면 집이 금방 상한다는 말에 주말에는 가끔 시골집에서 하루 자고, 집 앞 텃밭에 봄엔 감자 심고, 상추, 양배추, 콩 조금 심고, 하지 감자를 캔 후에는 그나마 관리가 편한 들깨를 심습니다.

밭도 넓지 않고 100평 정도예요. 주말에만 하는데도 어찌 이리 농사가 힘든지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가 힘들다는 것과 농산물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사람들이 우스개조로 “할 거 없으면 농사나 짓지~” 하던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농사는 다 제때 심고 가꾸고 거두고 특히 하늘이 제때 비를 내려주고 온도도 맞춰주어야 가능합니다.

적은 농사지만 올해 감자 캔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감자 캔 후

6월 말에 들깨를 심었는데 8월 말에 갑자기 들깨가 죽을 것처럼 시들 시들해져서 한 걱정하면서도 ‘곧 관촬아지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폭염과 장마, 그 후에는 가뭄이 심해 들깨가 다시 살아날 생각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들깨도 10월 10일쯤이면 베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농사 2년째인 초보 농부로서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다행히 추석 연휴 시작 전부터 소나기성 비가 제법 내려 들깨가 다시 살아나고 꽃을 피우고 생기가 나서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모릅니다.

시골에서는 추석 연휴 첫날 공동 작업 부역을 합니다. 동네 주민 모두 나와 동네 길거리 풀을 뽑고 베는 공동 작업입니다. 저는 주로 시내에서 생활하지만 매년 추석 연휴 첫날 실시하는 동네 부역에는 꼭 참석하려고 합니다.

토요일 연휴 첫날 새벽 5시 40분부터 방송에서 이장님 목소리가 동네 부역을 알렸습니다. 일하기 전에 모이는 마을회관에 가서 동네 어르신들께 인사드리고 운동기구 공원에서 제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일하면서 보니 제가 56살인데도 어느덧 동네에서는 거의 막내일 정도로 세월이 정말 빠르다는 느낌에 놀랐습니다.

저 어릴 때 제 나이였던 분이 어느덧 최고 나이 많은 어르신이고 10여 년 전만 해도 풀 베는 예초기를 메고 작업하셨던 어르신은 이제는 몸이 편찮아 호미만 들고 나오셨어요. 마음이 행하고 씩씩하고 먹먹하고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도 났어요.

새벽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작업하고 마을회관에 모여 빵이랑 두유 등을 나눠 먹는데 어르신들이 걱정이 크시더라고요. 이구동성으로 올해처럼 이렇게 뜨거운 날의 연속은 처음이고 가뭄이 이렇게 긴 적도 처음이고 올해처럼 물에 빠져 사는 듯 습한 날씨도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사과 농사짓는 분이 “사과가 예년처럼 제때 익지도 않고 사과 곶은 햇볕에 데고 사과 때갈도 안 나고 올 사과를 제때 제 가격에 팔 수나 있을까 걱정이야” 하시자, 사과 농사짓는 다른 어른신이 “근데 내가 도매시장에 가서 보니까 어떤 사과는 때갈이 어떻게 그렇게 잘 낫는지 이상하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른 어른신이 “사과나무도 유목만 때갈이 잘 나~” 하셨습니다. 유목이 뭔가 했더니 ‘어린 사과나무’래요.

자두 농사하는 분은 “원래는 자두를 추석 전에 팔아야 하는데 올해처럼 길만 빨갛고 자두 속이 제대로 익지 않아 단맛이 덜한 적은 처음”이라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콩 농사짓는 분은 “내 팔십 평생에 콩밭에 물 쥐보기는 처음”이라며 그렇게 물 주고 살폈는데도 일부는 죽었다고 폭염과 가뭄이 심해서 콩 꼬투리가 제대로 달리지 않고 영글지도 않는다고 속상해하셨습니다.

배추 농사짓는 분은 “배추가 다 죽어서 올해 두 번째 다시 심었는데 어찌 살 거 같지가 않아. 이래서 김장 김치나 해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시골에서는 김치가 큰 반찬인데~” 하시며 다시 한숨. 매년 배추를 심는 중복 무렵인 광복절쯤엔 선선해져야 하는데 추석에도 이렇게 한여름이고 에어컨을 켜야 하니 날씨가 밍다 못해 원망스럽다고 들 하셨습니다.

밤농사 짓는 어른신은 제때 방제 작업을 해도 올해는 밤이 많이 열리지도 않고 크기도 크지 않고 벌레가 이렇게 많은 적도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어른신은 “올해처럼 고온다습하면 칠팩굴이나 가시박덩굴이 무섭게 번식하고 커진다”며 “올해 밭둑으로 녀굴이 올라와 밭작

물에도 영키고 과일나무에도 영켜서 예초기로 작업하느라 죽을 뻔했다”라고 허탈하게 웃으셨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농산물 가격이 낮아 늘 속상하고 힘들고 늙어서 농사짓기도 힘든데 날씨가 농사를 힘들게 하니 이래서 농사를 짓고 살 수나 있겠느냐’고 입을 모으셨습니다.

저야 시내에서 회사 다니고 주말에만 가서 집 앞 100평 농사나 지으니 진정한 농부도 아닌데 오늘 동네 부역 나가서 수십 년 농사지으신 진정한 농사 고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니 저도 속상하고 기후가 큰 일이고 심각한 문제다 싶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한테 어르신들 말씀을 들려주니 버럭 화를 내요.

“내가 환경의 날 행사 다녀와서 팸플릿 보여줬잖아. 평소애 탄소 배출을 줄여야 지구도 지키고 기후 이변도 막는다고. 엘베 타지 말고 운동할 걸 계단으로 다니고 샤워 시간 1분만 줄여도 탄소가 엄청나게 줄어드니 샤워 시간 줄이고 겨울에 난방 온도 낮추고 옷 두껍게 입으라고 했지? 답답하다고 반바지에 반소매 입고 난방 온도 높이지 말고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고 차 운전할 때 급출발, 급가속하지 말고, 소귀에 경 읽는 것처럼 말도 안 듣더니 내가 잔소리처럼 말한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지?”

저는 아내가 잔순이라서 잔소리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생활 속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이더라고요. 기후 위기가 우리 코밑에 까지 왔다는 걸 깊이 깨달은 이번 여름입니다.

“지구야 아프게 해서 미안해. 앞으로 너를 지켜줄게.”

Letter 11

동네 작은 우편취급국

이종애 | 경기도 화성시

‘우편취급국’이라고 아시나요? 은행과 보험, 우편, 택배 업무를 하는 규모가 큰 우체국과는 달리 우편취급국은 우편과 택배 접수를 주 업무로 하고 있어요.

직원도 셋 정도로 아담하고 오붓해서 정이 넘치는 곳이죠. 저는 화성시 작은 동네의 우편취급국에서 일한 지 1년 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정말 자랑할 게 많은 곳이라 여성시대에 글을 남겨봅니다.

우리 ‘화성와우 우편취급국’은 현재 이 자리에서 30년 넘게 운영하고 있어요. 작은 가게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키는 건 여러모로 대단한 일이잖아요. 현재 국장님께서 정성으로 돌보시는 곳이라 가능했던 것 같아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오시기 때문에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친절하고 밝게 또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일을 처리하세요. 옆에서 보고

배우면서 저도 닦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고객님이라는 단어도 듣기, 내용증명, EMS 등 낯설었던 일들도 차츰 익숙해지니 매일 오시는 고객분들과 대화할 여유도 생겼어요. 오히려 제가 고객분들께 좋은 기운을 받고 있습니다.

야채나 반찬, 쌀 등을 가족들에게 보내면서 저희 것도 챙겨주시는 고객님들, 한국말이 서툴지만 본인의 나라에 물건을 보낼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시는 외국인 고객님들, 엄마 아빠 따라와서 국장님이 주시는 과자 받으면서 환하게 웃는 어린이들, 장사가 대박 나서서 매일 많은 물량을 보내셨으면 하는 사장님들까지!

하루에 백 명 넘게 상대하다 보면 진이 빠지기도 하지만 좋은 분들과 시간을 보내다보면 어느새 일과를 마감할 시간이 옵니다.

물론 화를 내는 분도, 짜증을 내는 분도, 억지를 부리는 분도 계시지만 그럴 땐 30년 내공의 국장님과 부장님의 위로가 큰 힘이 됩니다.정이 넘치는 분들과 함께 일하다 보면 저도 더불어 더 씩씩해지고 정성을 다하게 되더라고요.

명절 시즌엔 더 많은 고객님이 우체국, 우편취급국을 찾아주고 계세요. 눈코 뜰 새 없이 일하다 보면 국장님, 부장님, 저까지 안 아픈 곳이 없지만 가족과 지인, 고마운 분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고객님들을 생각하며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우편취급국이 있다면 한번 눈여겨봐 주세요. 그 자리에서 3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키며 하루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Letter 12

조져스 레스토랑

임혜선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평촌로

오 늘 제 사연을 '사랑이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가정의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아이디어네'라고 여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9년 전 9월 10일 하늘은 높고 태양은 지글지글하던 날. 엄마는 예복은 고급져야 한다며 제게 벨벳 소재로 된 투피스를 사주셨고 저는 그걸 입고 고객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등줄기와 곱게 한 화장에서 실 새 없이 땀이 줄줄 흐르던 그날 그렇게 결혼하고 아들딸 쌍둥이를 낳아 키운 지 어언 18년. 두 녀석은 어느덧 고2가 됐습니다.

“엄마 아빠, 2시간만 도서관에 나갔다 오세요. 전화하면 손 꼭 잡고 들어오세요.”

그렇게 설거지하다 말고 내쫓김을 당했죠.

“3시 45분~ 띠리링~ 이제 들어오세요.”

도대체 뭘 한 걸까? ‘냉장고에 보니 샐러드 재료랑 있던데~’ 궁금해하

며 현관문에 들어서니 “어머나, 이게 다 뭐야?” 현관 바닥에서부터 거실까지 초록초록한 단풍잎과 촛불이 놓여 있고 멋진 카페에서나 나올법한 음악이 흐르면서 거실 한쪽에는 주방 테이블이 옮겨져 있더군요. 그렇게 우린 ‘조저스’ 레스토랑으로 안내가 되었습니다. 조저스는 아들과 딸이 하는 밴드 그룹 이름이에요.

“오늘은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여기 메뉴판에 오늘의 메뉴가 적혀 있고요. 물과 식전 빵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머 어머~ 완전 제대로네~”

제가 메뉴판을 보며 감탄하는 사이 갓 구워진 빵과 스프가 배달되었고 “이 양송이스프 잘 만들었다~” 감탄하는 제게 아들은 “대기업에서 도와주셨습니다.”라며 스프 회사 브랜드를 능청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맛나게 먹고 있는데 이번엔 딸이 엄마인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리코타 치즈 샐러드와 새우살이 통통한 스파게티를 들고 왔어요.

“우와! 이걸 언제 다 준비했어?”

“어제 우리 2시간 장 봤잖아요. 마트를 세 군데나 갔었어요.”

그리고 연이어 나온 메인 요리는 채끝살 한우 스테이크.

“이 부위는 웰던으로 구웠고 여긴 아빠 좋아하는 레어미디움입니다.”

그렇습니다! 딸은 냉동실에 있던 새우랑 해산물로 파스타를 만들고 아들은 평소 제가 좋아하는 한우 집에까지 가서 채끝살을 공수해 와서 뜨거운 불에 지글지글 구웠던 겁니다.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입에서 살살 녹더라고요.

그렇게 너무나 만족스럽게 식사하고 있는데 이번엔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아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엄마랑 사느라 고생 많으시지요? 그래도 저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꿈이 생겼어요. 저도 나중에 이런 가정을 만드

는 거예요.”

그 어느 칭찬보다 더 감개무량했습니다. 아이들의 편지에 살짝 눈시를 이 젖어드는 찰나~

“후식 나왔습니다.”

후식은 요즘 엄청나게 유행하는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따라 했더라고요. 집에 있던 요거트를 얼리고 견과류를 토핑으로 올려서 만든 아이디어가 재밌고 귀여워서 또 한 번 웃으며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맛있게 한 끼를 마무리하며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멋진 생각을 했니?”

“이제 기숙사로 가야 하니까 그 전에 엄마 아빠한테 선물하고 싶어서 우리 둘이 머리를 맞댔지요.”

애들 아빠는 지갑에서 용돈을 꺼내줬고 아이들은 더 신나 하며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을 보내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참 기특하고 고맙네.”

“아까 보니까 양송이랑 샐러드는 슈퍼에서 30% 세일하는 걸 사 왔더라고요. 어쩜 나랑 똑같아~”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내 곧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한번도 울 엄마만을 위한 그런 상을 차려드리지 못했다는 게 생각나서요. 자녀에게 배웁니다. 저도 꼭 더 늦기 전에 우리 엄마만을 위한 이런 고급지고 정성스러운 상을 꼭 대접해 드릴 겁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댁에도 제2, 제3의 조저스 레스토랑이 꼭 펼쳐지길 소망해 봅니다.

Letter 13

소쩍새가 온다

애청자

엄마, 안녕?

엄마 좋아하는 포도랑 단팥빵 들고 갔던 건 알고 있지? 오늘은 엄마 생신이기도 한데 이번에도 미역국은 못 끓였네. 내년에는 꼭 끓여 갈게.

나는 미역국 먹었냐고? 신 서방이 자기가 끓이면 맛이 없다고 해서 내 손으로 직접 끓여 먹었지. 이젠 생일에 미역국 안 끓여준다고 투덜 거리지 않아.

추석 이틀 전이 내 생일이었으니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 엄마가 내 생일 챙길 여력이 없었다는 걸 나도 며느리가 되고 엄마가 되어보니 알겠더라고.

엄마, 고향이 많이 변했어. 산소 앞으로 고속도로가 생겨서 마을이 두 동강 났어. 엄마 시끄러운 거 싫어하는데 걱정이야.

그곳에서 삶은 어때? 거기서 사는 삶은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버지는 만났어? 아버지가 이승에서처럼 여전히 변한 것 없이 무뚝뚝하고 폭력적이면 쳐다보지도 말고 다른 남자 만나. 엄마도 남편 사랑 받으며 살아봐야지.

엄마! 요즘 밤마다 소쩍새가 울어. 소쩍새가 울면 엄마 생각이 더 많이 난다. 기억나지? 엄마가 시한부 선고받고 내게 왔던 날 밤, 그때가 5월이었는데 벌써 소쩍새가 운다며 마당에 서서 눈물을 흘렸잖아. 할머니에게 당한 고달픈 시집살이가 생각나서 울었어? 하긴 할머니의 간간한 성격 때문에 엄마 시집살이가 고달프긴 했겠다. 엄마를 고향 땅에 묻고 오던 날 밤에도 소쩍새가 울었어.

나는 엄마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난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어. 주위에서 엄마 닮았다는 소리를 하면 내 모습 어디가 엄마를 닮았냐며 발끈하곤 했지. 딸이 엄마를 닮으면 그 삶을 따라간다는 말이 있잖아. 그래서 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하지만 부정할 수 없다는 걸 알아. 내가 거울 앞에 서면 거울 속에는 엄마가 서 있거든. 동생들은 내 모습이 내 목소리가 점점 엄마를 닮아간다고 좋아해. 이젠 그 소리가 싫지 않은 걸 보면 나도 늙나 봐.

낮에는 봉제 공장으로 밤에는 학교에 가면서 ‘졸업만 해 봐라 재봉틀 발판은 절대 다시 안 밟을 거다’라며 이를 악물었는데. 지금은 내 옷도 직접 만들고 신 서방 옷도 만들어줘. 예쁜 옷도 만들고 예쁜 가방도 만드는데 그때마다 엄마 생각이 나. 엄마가 “그거 나 줘!” 하면서 샘 부렸을 텐데 그럼 나는 “안 줄 거야!” 하면서 양탈 부리고. 엄마한테 옷 한 벌 만들어 드리지 못한 게 자꾸 마음에 걸려.

요즘 신 서방이랑 여행을 자주 다니는 데 좋은 곳 많더라. 엄마도 여행 다니는 거 좋아했는데 단둘이 여행 한번 못했다는 생각에 미안



하고 그러네.

생각해 보니 엄마 생전에 사랑한다는 말도 한번 못 했어. 지금이라도 하늘을 향해 “김 여사! 사랑해!” 외쳐 볼까? 엄마가 들었다면 “시끄러 이 지지배야! 생전 안 하던 소리를 하고 난리야!” 하셨겠지?

엄마, 큰딸이 이제야 철드나 봐. 내가 큰딸이라고 해서 엄마 놀란 건

아니지? 나도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야. 할머니 옷 께짜 깊이 숨어 있던 낯선 여자의 사진을 봤어. 할머니한테 누구냐고 물으니 큰엄마라고 하더라. 큰아버지 돌아가시고 팔자 고치라고 재가시켰다고. 엄마가 우겨서라도 그냥 나를 큰딸로 키우지 그랬어. 둘째 딸로 자라면서 내가 얼마나 서럽고 억울했는지 엄마는 모르지?

할머니랑 아버지는 언니하고 오빠만 끼고돌지. 집안에 온갖 굵은 일은 다 나한테만 시키고 엄마 화풀이도 내가 다 받아냈잖아. 그래서 엄마를 더 미워했던 거야.

엄마 떠나기 전에 직접 듣고 싶었는데 차마 내 입으로 물어보질 못 하겠더라. ‘내가 엄마의 큰딸로 자랐다면 엄마를 덜 미워했을까?’ 인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상관일까 싶어.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엄마가 마당에 심어 놓은 분꽃이 피기 시작해. 분꽃에서 엄마 냄새가 나. 분꽃 냄새에 취해 마당을 서성거리는데 밤하늘에 뜬 둥근달이 무지개색 옷을 입고 분꽃에 내려앉았어.

이장 할머니가 나한테 했던 말이 생각난다. 엄마 시집을 때 얼굴이 달덩이처럼 빛나서 시골 동네 전체가 환했다며? 엄마는 농사짓는 사람답지 않게 얼굴도 백옥같이 하얗고 화장하는 것도 참 좋아했는데 이젠 기억도 희미하네.

엄마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꿈은 뭐였을까? 결혼기념일은 언제지? 어느 계절에 결혼했어? 뭘 좋아했지? 날 사랑해 주지 않았다고 원망만 했지. 엄마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 미워하고 원망하느라 엄마의 삶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어찌면 내 삶이 힘들다는 이유로 누군가 원망해야 할 대상이 필요했는지 모르지.

엄마, 미안해! 이제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을게. 숲에서 또 소쩍새가 울어. 엄마가 우리 집으로 오던 그날처럼.

Letter 14

따뜻한 부산

오가와 요코 | 일본 도쿄

저는 여성시대를 들으면서 한국어를 공부한 지 5년 반이 된 일 본인 당당이 오가와 요코라고 합니다.

약 3년 전 여성시대에서 제 사연이 소개되었을 땐 보육교사였는데 지금은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의 자막을 교정하는 직업을 얻어 매일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가지 못한 지가 꽤 되었는데 어느 날 고2 첫째 아들이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침 아들들도 사춘기가 오면서 부모와 외출하는 일이 줄어들는 게 느껴졌고 이게 마지막 가족여행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올여름 부산으로 3박 4일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옛날에 한국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한글을 하나도 몰라서 한국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국말을 잘할 수 있으니 이번 여행에서는 제 한국말이 정말 통할지 걱정 반 기대 반이었어요.

드디어 여행 첫날 우리 가족은 부산에 송도라는 아름다운 섬이 있다고 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갈 때는 케이블카, 올 때는 택시를 이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웠지만 바다의 시원한 바람도 쐬고 멋진 카페에서 맛있는 커피와 빵을 먹을 수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카페를 나오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는데 택시가 한 대도 안 보였거든요. 버스를 이용하자니 교통카드도 잔돈도 없어서 눈앞이 캄캄했어요. 주위를 둘러보았고 마침 저 앞 휴게소에서 일하다가 휴식을 취하고 계신 아저씨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쭙봤더니 역시 버스를 타는 게 좋다고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지금 교통카드도 잔돈도 없고 단돈 오만 원권 지폐 한 장만 있다고 상황을 설명한 순간 한 아저씨께서 지갑을 열고 지폐를 꺼내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옆의 아저씨도요! 저희는 가족이 네 명이나 있어서 돈을 받을 수 없다고 사양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열사병에 걸리겠다 싶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시 카페에 가서 직원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싶은데…”라고 말한 순간 그 여자분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제가 불러드릴까요?” 해주셨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10분 후 기다리고 기다렸던 택시가 왔습니다. 기사님에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했더니 “섬은 거리가 멀어서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데 누군가는 가야 하니까 내가 도맡아 가는 거예요” 하셨습니다. 정말 멋지고 고마운 분이셨습니다.

다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이었고 무엇보다 사람을 돕겠다는 의지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전혀 모르는 외국인에게 소중한 돈이나 시간을 줄 수 있는 걸까요?

다음날 중2 둘째 아들이 한국 미용실에서 머리를 잘라보고 싶다고 해서 미용실에 갔습니다. 대전에 살고 있는 나의 유일한 한국인 친구 윤미 씨가 예약부터 결제까지 다 해준 데다 근처에 유명한 빙수집이 있다며 빙수 쿠폰까지 보내주었습니다. 덕분에 둘째는 맛있는 머리로 변신하고 대만족, 우리 가족은 맛있는 빙수를 먹어서 대 행복. 아주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여행 삼 일째에는 해운대에 가서 바다도 구경하고 국제시장 포장마차에서 여러 가지 음식들도 먹어보았습니다. 서점도 구경하면서 하고 싶은 걸 다 해보았더니 벌써 한국을 떠날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호텔에서 미리 택시를 예약하고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기사님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드디어 공항에 도착. 탑승장 로비에 들어가 남편이 출발 안내 전광판으로 우리가 탑승할 비행기를 확인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시간에 뜨는 비행기가 없어!”

그럴 리가 없는데 싶어 저도 꼼꼼히 살펴봤는데 정말로 우리가 타려고 했던 비행기 정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땀이 나서 남편에게 종이에 인쇄한 비행기 티켓을 건네며 확인해 달라고 했죠. 티켓을 본 남편의 대답.

“시간 틀렸어! 30분 남았어! 뛰어!”

체크인 카운터에 도착해 티켓을 보여주었더니 직원분께서는 이미 마감이라 하셨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된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구나 싶으면서 입으로 나오는 말은 “어떡해”뿐. 시간을 착각해서 늦었으니 다 저희 잘못이라 다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직원분께서



물으셨습니다.

“체크인은 하셨어요?”

“체크인? 체크인! 어제 제가 모바일 체크인했어, 했습니다! 네 명 다 했습니다! 제발~”

그랬더니 다른 아저씨 직원님이 “최대한 빨리 가셔야 됩니다! 가방을 맡겨야 하는데 추가 요금은 지금 당장 건너편에 있는 카운터에 가서 결제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거의 육상선수처럼 카운터를 향해 달렸습니다. 추가 요금을 결제하려고 카드를 전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어제까지는 괜찮았던 카드가 갑자기 결제가 안 된다고 합

니다.

“다른 카드 없어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같이 따라오신 아저씨 직원분께서는 옆에서 “사진 찍어!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하셨는데 지금 급하니까 카드번호만 찍고 결제는 나중에 하라는 지시였던 것 같습니다. 직원님이 카드 사진을 찍고 저에게 카드를 전해주시기가 무섭게 저는 또 전속력으로 뛰었습니다.

먼저 가 있던 가족들은 출국 심사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국 심사를 마치자 공항 직원분께서는 탑승구가 8번 게이트이니 빨리 가라고 알려주셨고 저는 무사히 비행기를 탈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는 남편이 8번이라는 소리를 듣고 뭘 착각했는지 객실 승무원 뒤로 따라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할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무작정 아빠를 따라갔죠. 심지어 저는 심한 길치. 결국 네 명이 다 승무원 전용 출구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그곳에 계셨던 모든 직원이 크게 소리쳐주셨어요.

“어디 가세요! 8번 게이트는 저쪽이에요!”

손가락으로 방향을 알려주신 덕분에 우리 가족은 무사히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느꼈던 게 판단력과 행동력 그리고 순발력과 의지가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였습니다. 무엇보다 그게 다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인 것 같아서 저도 그들을 닮고 싶고 이번 여행을 계기로 한국을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정말 많은 분이 우리 가족들을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도 일본에서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을 보면 꼭 친절하게 도울 겁니다. 그게 한국 사람이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의 힘

2영화 | 부산시 사카구 목천로

정리수납 고급 과정을 공부하면서 두려움만 설레임 반으로
시작했는데 그동안 몇십년동안 살림하고 살았는데 배움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배워야 된다는 것음~

치우고 챙겨봐도 늘 그자리인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버리지 못하고 아카워서 추억 때문에 이거저거 이유로 아래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거실에서 방으로 늘 그랬네요.

정리에 힘을 안고나니 버린다는 개념보다는 비우고 나누고
하면서 또 한번 이걸 내가 왜? 이제 배웠을까?

쉽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공부하면서 알게된 아름다운가게 지나다니면서 참 궁금했는데. 이층처럼 내가 필요에 의해서 샀지만 어떤지 지금은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깨끗한 물건들 난 비록 필요없지만 어느누군가는 필요하게 쓸수있는거 기부하고 나눔하니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마치 제 자신의 엄청난게 근절을 한것같은 기분 아시죠? 또 정리가 제대로 안되서 싱크대안쪽 같은거 두개씩 있는거 너무 많아서 솔직히 내 자신에게 부끄러웠습니다. 배우면서 그날그날 공부한거 집에와서 정리된 사진찍어놓고 정리후에 사진찍어 비교하면서 복습하고 하주는 싱크대 한편 조금씩 정리해놓고 키도높이도 각자 다른걸 키높이 부리 똑같은걸로 우선 양념통부리 정리하고 다음은 양념통에 라벨링은 붙이고 고추가루도, 매운맛, 브롬맛, 설량, 소금, 팥보며 누구라도 한눈에 찾을수있게 했어요.

다음은 냉장고 냉동식품은 큰빙지에서 작은빙지로 소분은

했구요 환번먹은 만큼. 새로로 세워서 나간려 시켜놓고보니
비닐봉투에 있어서 뽕쳐도 몰라서 문 열고 환장을 봐야했는데
시간도 절약되고 열고 봐라 꺼내니까 전자요즘도 절약 되는
효과있죠.

분수하게 음경하는 걸보고 쉼에서 지켜보던 남편도 당신처럼
이거 잘 배운 거 같다고 격려 해주니 어깨가 으쓱 올라가더라고요
당신은 뭐든 잘 할 수 있다고 응원에 힘입어 잘한다고
칭찬에 힘이찬 아이들만 좋아하라는게 아니더라고요.

침안에서 물건이 자기 자리는 못찾아 이리 저리 뒤집어
노숙생활을 한다는걸 배속고나니 어서 빨리 자기 자리를
찾아주고 싶었고 서랍장이 부족하여 더 살까 생각했는데
정리하고 나니 공간이 남아서 맘사도 되고 환눈에 딱보게
정리가 되고나니 시간절약 찾는라고 스트레스 삼박아도 되고
왜. -런거 있잖아요.

말씀해야되는데 생각없이 맵든들 뭘 잘다못잘으며 하루종일
신경 쓰이는거 다들 공감하시죠.

비록 아직은 부족하지만 완벽하진 않아도 이만큼이라도
하고보니 남편도 여보~ 그거 어디 있어요? 묻지도 않고.
항상 뭘든 필요해서 쓰거나 제차리에 두는거 정리뒤엔
유체가 필요하겠지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아름다운 가게에선 기업에서 직접
거부하신 물품도 많아서 저렴한 물건도 많이 있었어요.
유기농 제품. 기증받은 물품을 팔아서 수익금은 소외계층
어려운이웃에게 쓰신다하네요.

참 따뜻한 마음으로 잘아갈수 있어 행복 했습니다 작지판
노이고 또 다시 쓰고 좋은일에 동참할수 있어 마음편편이
따뜻한 마음으로 이글은 적어봅니다.



여성시대 사진방



[2613] 요양병원 소독실에서 혼자 근무하며 여성시대 들고 있어요.



[5201] 일요일 숲 공부 배우는 선생님들이랑 이 기대에서 도시락 까먹었는데 정말 푸짐한 밥상이었고 꿀맛이었네요.



여성시대표 행운번호 추첨 현장입니다.



[6462] 여성시대 들으며 시어머님 염색해 드리고 있어요.



[2349] 머리카락 기부한 우리 딸 나연이 자랑스럽고 사랑스럽다.

오늘의 추억

글/그림 28

대구북구의 여성시대 가족
당당이 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평생 대구에서 살던 저는
처갓집 형님의 일을 도우려 부엌로 내려왔습니다.

자네 주말부부하느라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지?



아닙니다.
형님

차 서방
맛있는 삼겹살집 있어.
저녁 먹으러 가자.



?

형님이 이끈 곳은 특별할 것 없는 삼겹살집.

맛이 좋았던 터라
주에 두 번 정도는 그곳에 가서 식사를 해결했지만
그곳이 저의 단골집이 되리란 생각은 못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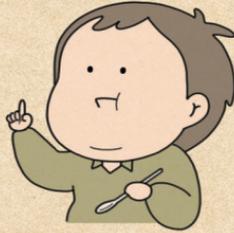
형님과 식사를 하던 어느 날.



그랬습니다.

돈장피개를 말끔히 비우며 늘 공깃밥 1개를
추가로 주문했던 저였습니다.

사장님
밥 하나 더 주세요~



저조차 자각하지 못했던 모습을
사장님은 기억해 주셨던 거죠.

이따금씩 간식을 뚝이 먹은 탓에
공깃밥을 한 그릇만 비운 날은

어디 아프나?

아재는 공깃밥 한 그릇만 먹으면
진짜 어디 아픈가~ 하고
걱정이 돼.



하시며 걱정 가득한 얼굴로 물어오기도 하셨지요.

그렇게 주말부부 생활을 끝내고 대구로 오게 되던 날



하며 아쉬워하시던 표정이 아직도 선합니다.

화물 일을 하기에 전국으로 여행하듯 운전을 하는 저는
부여에 갈 때마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꼭 나의 단골집에 들러 식사를 합니다.



나의 단골집이 오래오래 그 자리를 지켜주길 바랍니다.



환자들의 희로애락을 함께하다

IBK기업은행 영창동지점 거래고객
미래아이산부인과 양원규 원장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산부인과는 다른 병원과 달리 환자들이 기쁨과 설렘을 갖고 방문한다. 한 생명의 탄생을 함께하기 때문이다. 미래아이산부인과는 지역의 최대 산부인과로서 최고의 의료진과 친절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환자들의 기쁨의 순간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래아이산부인과는 2004년 산부인과 의사 3명, 소아과 의사 1명으로 시작하여 현재 의료진 18명, 직원 120여 명을 갖춘 병원으로 성장하였다. 임신부터 출산, 산후조리뿐 아니라 이후 산모와 아이의 건강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어 지역의 대표적인 산부인과 병원으로 사랑받고 있다. 최근 떨어지는 출산율로 인해 산부인과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충이 많지만 양원규 원장을 비롯해 의료진들은 사명감을 갖고

환자를 대하고 있다. 특히 처음 강서구에 병원을 개원할 때만 해도 주변에 분만하는 산부인과가 많았지만 현재는 큰 산부인과 외에는 거의 분만을 접은 상태이다.

“병원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사적인 활동을 안 하고 오로지 병원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한참 일에 매진할 때는 하루가 24시간인 것이 너무 짧게 느껴졌고 몇 년간은 제 스스로 나이가 몇 살인지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살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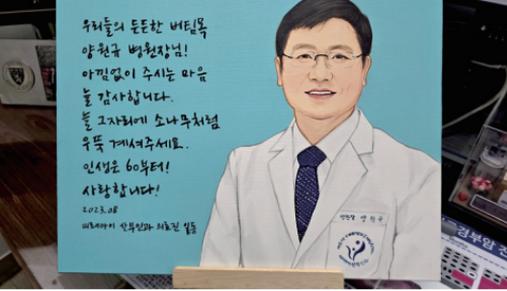
산부인과가 어렵지만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사 최선을 다하는 양원규 원장의 철학은 환자를 대할 때에도 이어진다.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물론 고민과 걱정을 함께 공감해 주면서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한다. 특히 항상 ‘환자는 나의 스승’이라는 철학을 함께 일하는 의사 동료들에게도 강조한다. 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그로 인해 실력이 향상되고 배우는 것도 많기 때문이다.

“산부인과는 인생 상담소예요. 많은 진료과 중 유일하게 희로애락이

모두 깃들어 있는 과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기쁨과 즐거움, 유산이나 기형아 등의 문제로 인한 슬픔과 분노 등 다양한 감정을 함께 느껴요. 아이를 갖고 출산할 때뿐만 아니라 후에 아이들이 커가면서 찾아와 인사를 하기도 하고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의 좋고 나쁜 소식을 모두 접하면서 다양한 감정을 공유합니다. 산부인과는 유일하게 환자들이 수술하고 기쁘게 걸어 나가는 과 중 하나예요. 산부인과를 택한 걸 후회하지 않아요.”

산부인과 의사로서 보람과 자부



심도 많지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율 저하, 인건비 상승, 진료실·수술실·분만실·신생아실 등을 갖춘 병원을 유지하는 비용, 분만 사고에 대한 리스크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이 많다. 특히 요즘에는 여러 가지 고충으로 인해 분만을 하지 않고 외래진료만 하려는 의사들도 있지만 미래아이산부인과 의사로서 분만을 담당한다. 산부인과 의사로서 분만을 경험하지 않

면 부인과 진료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양현규 원장의 신념 때문이다.

“요즘 분만을 기피하는 산부인과 선생님들도 많은데 우리 병원의 의료진은 모두 불만 없이 분만을 하시는 것에 고마움이 있어요. 함께 일하는 의료진과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터, 환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신뢰와 실력을 갖춘 병원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IBK기업은행 영창동지점 고정진 지점장은 “미래아이산부인과는 임



신과 출산, 산후조리, 산후 검사 등을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의 명망 있는 산부인과"라며 "사회적으로 산부인과가 줄고 있지만 미래 아이산부인과는 환자들을 위해 최근 산후조리원을 확장하여 지역사회에 없어서 안 될 산부인과 병원으

로 성장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2004년 개원과 함께 IBK기업은행과 인연을 맺은 미래아이산부인과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IBK기업은행 영업동지점 고정진 지점장(왼쪽)과 미래아이산부인과 양원규 대표

! 미래아이산부인과 양원규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환자에게 공감하라.
2. 자신의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라.
3. 함께 일하는 의료진과 직원들이 행복한 병원을 만들어라.

미래아이산부인과

대 표 양원규

전 화 02-3665-2002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6

홈페이지 www.i100.co.kr



바이오 기술 개발을 통해 인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다

IBK기업은행 서초3동지점 거래고객

바이오플러스(주) 정현규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바이오플러스(주)는 생체재료 응용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인류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한다. 글로벌 뷰티 기업으로 인간의 아름다움을 통해 인류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하고 효능이 높은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바이오플러스는 글로벌 뷰티·헬스 생체 바이오 기업이다. 2003년 주로 피부조직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회사로 창업하여 국내 필러 기술이 태동하던 시기에 맞춰 필러 기술 개발을 시작하였다.

바이오플러스는 오랜 기술 개발 과정을 거쳐 세계에서 유일하게 DVS 가교제 기반의 생체 고분자 가교 기술을 상용화하여 타 기업과 차별화를 이뤘다. HA필러는 HA와 HA

사이의 연결 브릿지를 이루는 가교제가 필수적인데 불완전하게 가교된 필러는 안면마비,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곤 한다. 바이오플러스는 DVS 가교제를 사용하여 안정성과 효과의 지속성을 높인 완전하게 가교된 필러를 생산한다. 더불어 필러는 용도상 점성, 탄성이 매우 중요한데 DVS는 BDDE보다 안전성에 서뿐만 아니라 점성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 10년 넘는 개발 과정을



거쳐 10년간 시장에서 판매가 되었는데 부작용 사례가 없다는 것이 바이오플러스의 기술을 입증해 주고 있다.

지금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처음부터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 보수적인 시장의 특성상 당시 잘 알려지지 않은 물질을 사용하는 필러에 대해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상을 통과하고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하여 국내 시장보다 세계 시장에서 먼저 인정받았다. DVS 가교는 공정이 복잡하고 반응성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계

필러 시장에서는 반응성 통제가 용이한 BDDE를 더 많이 사용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DVS 가교제를 사용한 필러를 상업화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은 바이오플러스가 유일하다.

이처럼 의료기기에서 의약품 분야로 사업을 확장한 바이오플러스는 스킨케어 및 헤어&바디 제품 등 코스메틱과 독신 및 비만·당뇨치료제 등 의약품 개발까지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펩타이드 기술을 적용한 코스메틱 제품 ‘보닉스 리보(Bonyx Rebo)’라인을 론칭하였다. 바이오플러스의 기술이 접목된 보닉



스 리보 라인은 ‘얼굴 주름 개선 세럼’ ‘얼굴 미백 및 주름 개선 세럼’ ‘목 주름 개선 세럼’ ‘두피용 영양 세럼’ 등 총 4종으로 구성되었다. 각 제품에는 코스메틱의 유효 성분을 체내에 오랜 기간 유지하는 AUT(Anti-Ubiquitination Technology)와 생체 물질을 타깃 세포까지 전달하는 BMTS(BioMaterial Trans-dermal System) 기술이 적용되어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내년에는 비만당뇨치료제 제네릭 제품의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만당뇨환자들의 투약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보툴리눔 독소와 3중작용제 비만당뇨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바이오플러스는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난 2021년 코스닥에 상장하였고 매년 높은 실적 성장을 달성하였다. 현재 차별화된 제품 기술력과 영업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70여 개 국가에 진출하였고 90% 이상 매출이 해외에서 발생할 정도로 해외 비중이 큰 만큼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바이오 의요기기 및 의약품의 글로벌 리



더로 우뚝 서겠다는 계획이다.

IBK기업은행 서초3동지점 김경혜 지점장은 “2003년 창업하면서 인연을 맺은 바이오플러스는 꾸준히 성장하여 상장까지 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라며 “올해 말 음성에 신규 생산 시설을 구축하여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하고 공정과 생산 관리 시

스템을 효율화하여 더욱 탄탄대로의 성장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만큼 투자자들이 많지만 IBK기업은행 또한 바이오플러스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IBK기업은행 서초3동지점 김경혜 지점장(왼쪽)과 바이오플러스(주) 정현규 대표

① 바이오플러스(주) 정현규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차별화된 기술력을 갖춰라.
2.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을 공략하라.
3.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

바이오플러스(주)

대표 정현규
전화 070-7706-4437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 8길 9, AJ빌딩 7층
홈페이지 <https://bioplus.co.kr>

코너 속 편지

사랑 사랑 사랑

- 81 팔찌가 이어준 사랑
- 86 남편의 병간호
- 89 입대 일주일 전
- 95 전하지 못한 진심

여자는 모른다

- 99 맥가이버는 어디에
- 103 사랑도 통역이 필요해
- 106 마음이 콩닥콩닥



사랑 사랑 사랑

팔찌가 이어준 사랑

애청자

토요일 여성시대를 듣다가 저와 남편이 처음 만난 시절의 이야기가 생각나 사연을 적어봅니다.

때는 2013년 제 나이 서른 살로 회사에서 막 대리를 단 해였어요. 그날은 협업하는 팀과 미팅이 잡혀 있어 정신없이 바쁜 날이었죠.

“네 여보세요? 네? 벌써 도착하셨다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팅 시간을 착각했나 봐요. 설계동 카페 맞을까요? 금방 가겠습니다.”

‘머피의 법칙’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한 번 꼬이면 계속 꼬이는 법칙을 말하는데요. 이걸 말로만 들어봤지 이렇게 실감하게 되리라고는 정말 몰랐어요.

분명 미팅 시간을 오후 세 시로 알고 있었는데 상대 쪽에서 전화가 와서는 두 시에 만나기로 한 거 아니었냐고 십분 짜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팀장님, 저희 미팅 두 시였대요. 지금 바로 가야 해요, 빨리요!”

저는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계신 팀장님을 급히 모시고 정신 없이 약속 장소로 뛰어갔습니다. 다행히 미팅은 별 탈 없이 마쳤고 사무실로 돌아와 막 숨을 돌리려던 찰나 뭔가 허전한 기분에 거울을 확인해 보니 아침에 차고 온 팔찌가 없어진 게 아니겠어요.

“팀장님, 혹시 저 아까 미팅할 때 팔찌 차고 있었나요? 기억 안 나시죠?”

“아이~ OO 씨가 팔찌를 하는지 귀걸이를 하는지 코걸이를 하는지 내가 알 리가 있나. 왜 그래 잃어버렸어?”

“아침에 분명 하고 왔는데 없어져서요. 아까 뛰어가다가 길에 흘려나 봐요.”

대리 단 기념으로 스스로에게 선물하겠다고 비싼 돈 주고 산 건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아까 미팅 장소로 가는 길에 흘린 것 같아 그 먼 길을 다시 걸어 다니며 살살이 둘러봤지만 결국 팔찌는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거 못 찾았어? 사내 게시판에 글 올려봐. 누가 주웠으면 알려주겠지.”

팔찌는 요만하고 길은 저렇게 넓은데 누가 주울 리가 있나 또 주웠어도 그게 우리 회사 사람일 리가 있나 싶었지만 속는 셈 치고 한 번 올려보기로 했죠.

<팔찌를 잃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회사 근처에서 팔찌를 잃어버려 글 올립니다. 왕관 모양 장식의 팔찌고요. 설계동 가는 구름다리나 그 근처에서 발견하신 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액땀한 셈 치고 이번 달 월급 들어오면 완전히 같은 걸로 다시 사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한 30분이 지났을까요?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 제가 올린 게시글에 답글이 하나 달렸더라고요.

<제가 주워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분 맞으시죠? 다섯 시쯤 1층 카페로 갈 테니 거기서 뵙죠.>

저는 시간 맞춰 1층 카페로 내려갔고 저 멀리서 한 남자분이 걸어오 시는데 눈에 띄게 잘생긴 얼굴에 큰 키. 저는 살짝 심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팔찌 주인 맞으시죠?”

“네. 제가 오늘 잃어버려서 글 올렸거든요.”

“제가 줬던 했는데요. 혹시 팔찌 구매한 이력이나 착용하고 찍으신 사진 있을까요? 확인해 보고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뭐야,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남자가 제 이상형이라서 그랬을까요. 꼼꼼한 모습이 마냥 좋게만 보이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이거 팔찌 샀을 때 SNS에 올린 사진인데요. 여기 왕관 모양 보이시죠?”

“맞네요. 가져가시고요. 그럼 수고하세요.”

그렇게 팔찌를 돌려받고 사무실에 오는데 웬지 모르게 숨이 가쁘고 얼굴이 달아오르는 게 이상했습니다. 꼭 구름 위를 뛰어다니는 기분이었지요.

다음날 저는 동기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팔찌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완전 이상형인 남자가 찾아줬다는 거지? 야, 대박! 이거 운명인데 사례는 했어?”

“사례는 안 했는데. 1층 카페에서 만났는데 커피라도 사드릴 걸 그

랬나.”

“그럼 잘됐네. 게시글 아직 안 지웠지? 쪽지로 사례를 깜빡했다고 전화번호라도 달라 그래.”

좋은 아이디어다 싶어 게시글을 타고 그 사람에게 쪽지를 보내려는데 이미 쪽지가 하나 와있더라고요. 오늘 이른 아침에 도착한 문자였어요.

<팔찌는 잘 차고 계시나요? 끊어지거나 이상한 부분은 없으시죠?>

‘굳이 이런 AS까지 해준다니 이 사람도 내가 마음에 들었나?’ 하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직진했습니다.

<덕분에 잘 차고 있어요. 혹시 이따 점심 드시고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사례하겠습니다.>

쪽지를 보냈죠. 흔쾌히 오케이를 해준 그 사람 덕분에 우리는 다시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점심을 빠르게 먹고 동기에게 급히 립밤과 향수를 빌려 한껏 정돈된 모습으로 꾸미고 나갔어요.

“안녕하세요? 팔찌 하고 오셨네요.”

“아, 덕분에요. 안 그래도 제가 어제 사례를 못 한 게 마음에 걸려서요. 편하게 주문해 주세요. 제가 살게요.”

그 사람은 검은색 티셔츠에 통 넓은 면바지를 입고 나왔는데 어제보다 더 멋있어 보였어요. 이야기를 나눠 보니 저보다 한 살 어리고 입사도 저보다 2년 늦은 후배였지요.

“그러셨구나~. 저는 우민 씨보다 2년 빨리 입사해서요. 올해 막 대리를 달았거든요. 앗, 뜨거!”

“괜찮으세요? 잠시만요.”

제가 커피를 홀리자마자 빠르게 카운터로 가서 물티슈를 가져다주

는 모습 그리고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맑은 눈과 친절한 미소에 더욱 호감이 상승했습니다. 뭔가 소개팅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커피를 시작으로 그 사람은 자신이 커피를 얻어 마셨으니 다음에는 밥을 사고 싶다며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갔고 네 번째 만남 때 저희는 정식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애할 때 어머니는 늘 그러셨어요.

“우민이 엄마는 좋겠다. 저렇게 훌륭하고 멋진 아들이 있어서 말이야. 엄마는 딸만 있어봐서 몰랐는데 우민이 보면 아들 가진 엄마들이 왜 눈에 하트가 뜨는지 알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데 왠지 마음이 울렁거리면서 그 사람과 꼭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 그럼 내가 우민이 엄마 사위로 만들어 줄까?”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그에게 먼저 결혼하자고 프리포즈를 했고 우리는 1년의 연애를 끝으로 2014년 겨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벌써 결혼 10년 차. 남편으로도 두 아이의 아빠로도 또 우리 엄마의 사위로도 늘 최고인 그이에게 늘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여보, 우리 앞으로도 50년 100년 행복하게 잘 살자. 사랑해♡

사랑 사랑 사랑

남편의 병간호

문갑순 | 경남 사천시

2024년 8월 27일 나는 미루고 미루던 허리 수술을 받았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 간호사 선생님이 물으셨다.

“저희가 일반 병실이랑 간호 간병실이 있는데요. 어디로 들어가시겠어요?”

차이를 물어보니 보통 가족이 상주하며 병수발을 들면 일반 병실, 마땅한 보호자가 없어 간호 간병이 필요하면 간호 간병실에 들어간다고 했다.

남편에게 “어디로 할까?” 물어보니 뭐 그런 걸 묻냐는 듯 “간호 간병으로 해야지” 하길래 조금은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집에서 놓고만 있으면서 내 병수발 며칠 들어주는 게 그렇게 싫을까 싶었다.

막상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받으니 간호 간병실도 부족함이 많았다. 워낙 일이 바쁘시니 간호조무사 선생님들도 환자를 직접적으로

돌봐주지는 못했고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만 간호사 선생님을 불러야 하니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렇게 삼일이 지나 드디어 퇴원하는 날 차를 끌고 나를 데리러 온 남편에게 한마디 말도 걸지 않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부터 남편이 나의 진짜 보호자가 되어 병수발을 드는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통 밥맛이 없네. 아무것도 먹기가 싫어. 냄새가 난다니까!”

“뭘데? 아무 냄새 안 나는구만. 허참 나!”

도저히 밥맛이 없어 수저를 내려놓자 눈을 흘기는 남편은 갑자기 겹옷을 입고 집을 나서더니 양손 가득 무얼 싸 들고 왔다.

“당신 좋아하는 저기 삼천포에서 파는 전복죽이다. 묵어라!”

그 죽을 이틀에 걸쳐 먹으니 힘이 좀 났다. 마지막 남은 죽 그릇을 싹싹 비우는데 그이가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다.

“묵고 싶은 거 있음 말하래이. 내 구해다 줄게!”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복숭아가 먹고 싶어졌다. 나는 사실 복숭아 껍질 알레르기가 있어 누가 깎아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 일단 말이 라도 해보자 싶어 조용히 소곤거렸다.

“나 복숭아 먹고 싶은데.”

그러니 남편이 또 쌍하고 사라진다. 몇 시간이 지나 집에 돌아온 그 이 손에 들려있는 복숭아. 그중 두 개를 꺼내서 깎더니 쟁반에 옮겨 담아 자기는 한 조각만 먹고 남은 것을 다 내 쪽으로 밀어준다.

“자, 묵어라!”

복숭아를 다 먹으니 머리가 슬슬 간지러웠다. 이제는 남편이 이것도 해줄까 싶은 기대감에 입이 알아서 나불거린다.

“나 머리가 간지러워. 감겨주나?”

허리를 부여잡고 골골대는 아내를 보더라도 이걸 좀 힘들겠다 싶었는지 남편이 잠잠하다.

“역시 좀 힘들겠지?”

“아이다! 수건 깔아주려니까 여기 누워라.”

대뜸 욕실 앞에 누우라고 하더니 서툰 손길로 머리를 감겨준다. 다 감겨주고 나서는 나를 선풍기 앞에 앉혀 머리를 살살 말려주고 자세가 불편하지는 않으나며 재차 살핀다.

이러려고 집에 와서 이렇게 잘해주려고 삼 일 동안 나를 병실에 혼자 두었나 싶어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진다. 남편의 정성 어린 병수발을 받으며 말 그대로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데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오늘은 좀 어떠세요? 불편하신 건 없어요?”

11월에 결혼을 앞둔 큰아들이다. 나는 네 아빠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지극정성이라 불편한 거 하나 없다고 내 걱정하지 말고 너 결혼 준비나 잘하라고 말해준다.

“아빠가요? 진짜요?”

가끔은 속상한 게 있어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 받은 일인지. 요즈음은 내가 누구보다 사랑받는 기분에 마음이 풍성하다.

내가 건강해지면 나도 남편이 좋아하는 맛있는 반찬을 해주겠다고, 최선을 다해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다져본다.

사랑 사랑 사랑

입대 일주일 전

이영민 | 경기도 안양시

선선한 가을바람을 맞으니 옛 추억이 떠오른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1991년 가을 당시 나는 입대를 일주일 앞두고 친구들과 모여 술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자유도 며칠 지나면 끝이라고? 이렇게 병나발이나 불다가 군대에 들어갈 순 없어. 나 혼자 멋있게 여행을 떠나보는 거야!’

“야~ 짜식들아~ 나 내일 당장 충남 보령으로 바다 보러 갈 거거든. 이제 술 마시자고 부르지 마라.”

“에에? 설마 혼자? 우리랑 같이 가.”

“군대 들어가면 너희 같은 짹짹이들 지겹게 볼 텐데 마지막까지 너 네랑 놀아야겠냐. 어휴~ 지겹다 지켜워! 나 혼자서 자유를 만끽할 거야! 프리! 프리덤~”

친구들은 재 취해서 허풍 떠는 거다, 청송맞게 무슨 남자 혼자서 여

행이나 하며 말렸지만 아무렴 어떠랴. 내 술잔에는 독한 알코올 대신 이미 서해의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힘차게 울리는 시계 알람에 벌떡 일어났다. 당일치기로 다녀올 심산이라 많은 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스물한 살답게 얇디얇은 지갑과 수영을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회색 수건도 하나 챙기고 낭만 있게 시집 한 권도 넣어 출발한다.

“대천 해수욕장 한 명이요.”

버스를 타고 한참을 이동해 드디어 서해에 도착. 시간이 빠르다. 벌써 낮 세 시다. 가을이지만 아직 햇볕이 뜨거운지 모래사장이 뜨겁게 달궈져 있어 앉을 곳이 마땅치 않았다.

“수건 챙기길 잘했네. 아이고~ 멀리까지 와서 이게 뭐 고생이냐.”

나는 모래사장 한가운데에 수건을 깔고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기 시작했다. 부모님과 놀러 와서 모래성을 쌓는 아이, 손을 꼭 잡고 해변을 걷는 노부부 모두가 행복해 보인다. 더 둘러보니 단체로 놀러 왔는지 남녀 섞여서 선크림을 바르고 있는 대학생들, 생수로 모래 붙은 발을 씻고 있는 아저씨 그리고 나처럼 혼자 놀러 온 건지 일행 없이 돌아다니는 한 여자가 보인다. 바닷물에 손을 담근 채 까르르 웃는다. 예쁘다! 딱, 내 스타일이다! 나도 모르게 몸이 저절로 움직인다. 그 여성분이 있는 곳으로 빠르게 걸어간다.

“저... 혹시...?”

“네? 저요?”

“혼자 오셨어요?”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된다고 여기까지 와서 헌팅이 웬 말이나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내 입이 신났는지 혼자서 나불거린다.

“아하하~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저도 처음으로 혼자 여행 와본

거거든요. 근데 혼자 오신 것 같길래요. 그래서 말 한 번 걸어봤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도 혼자 왔어요. 은숙이라고 해요.”

“네, 은숙 씨! 저는 이영민이고요. 스물한 살입니다. 편하게 불러주세요.”

은숙 씨가 말이 없다.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얼굴에 식은땀이 뺨질 내려던 찰나 그녀가 이렇게 말한다.

“영민 씨 근데요. 저 배고파요.”

그녀가 나를 데리고 간 곳은 해수욕장 맞은편에 위치한 먹자골목의 한 횡집. 두리번거리지도 않고 망설임 없이 길을 찾는 게 한두 번 와본 곳이 아닌 듯했다.

“은숙 씨, 제가 대학생이어서요. 돈도 얼마 없고요. 당일치기로 온 거라 여덟 시에 버스 타러 가야 하거든요.”

“아직 다섯 시밖에 안 됐는데요. 얼른 들어와요.”

드르륵~ 그녀가 기어코 횡집 문을 열고 들어선다.

“이모~ 저 왔어요.”

이모? 처음에는 사장님을 친근하게 부르는 건가 했는데 바쁘게 서빙하고 있는 사장님의 얼굴이 묘하게 은숙 씨를 닮았다. 그렇다. 그 횡집은 그녀의 ‘홈그라운드’였던 것이다.

“뭐여! 은숙이 왔어~ 그 테이블 인냐, 저범 없으니 가져가~”

“저범? 은숙 씨, 저범이 뭐예요? 아니, 그 전에 여기 은숙 씨 이모님이 하시는 집이에요?”

“네, 저희 이모랑 이모부가 같이 하세요. 저범은 젓가락이고요. 저기 빨간 통에 꽂혀 있는 거 있죠? 그거 좀 가져와 주세요. 테이블은 제가 닦을게요. 이모~ 저희 광어 세트 하나랑요 나눠 한 마리도 주세요.”

나는 그 순간에도 ‘이모가 하시는 가게니까 공짜로 주시려나? 설마

내가 다 내야 되는 건 아니겠지? 은숙 씨한테 보태달라고 하긴 싫은 데'라고 생각했고 그런 스스로가 참 밉고 초라했다.

“은숙이 학교 친구여? 시방, 침 보는 얼굴인디?”

“아~ 학교 친구는 아니고요. 요 앞 해변에서 제가 은숙 씨한테 말 걸었습니다.”

“은숙이가 진짜 무서웠나봐. 학생 데리고 여 들어온 걸 보면!”

이모가 말을 거시든 말든 은숙 씨는 금방 내어져 온 낙지를 찰진 참 기름에 찍어 맛있게도 먹는다. 갑자기 전개된 저녁 식사에 정신이 하나도 없다. 대충 몇 점 먹고 소화가 안 된다는 핑계로 자리를 나서야지 생각하는데 이모님 뒤로 덩치 좋은 사내의 실루엣이 보였으니.

“영민 씨 안 드세요? 아~ 저분이 저희 이모부세요.”

은숙 씨의 이모부께서 회칼 두 개를 ‘창! 창!’ 서로 맞부딪히며 나를 바라보시는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그때 깨달았다. 내가 선량한 대학생이라는 걸 얼른 증명해야겠구나.

“은숙 씨, 여기 학생증 보이시죠? 저, 대학교 다니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이고요. 제가 머리를 기르고 있어서 좀 날라리처럼 보일 순 있는 데요. 여기 책도 보이시죠? 평생 공부만 한 완전 범생이예요.”

은숙 씨는 갑자기 먹고 있던 낙지를 푸하 뺨으며 배를 잡고 웃는다.

“누가 뭐래요? 얼른 먹어요. 그리고요. 그렇게 변명 안 해도 돼요. 오는 버스에서 다 봤어요. 저랑 같은 버스 탔었는데 몰랐죠?”

후에 알았지만 그녀가 해수욕장으로 오는 버스를 나와 함께 탔었던단다. 누가 봐도 어리숙하니 입을 헤벌리고 창문 밖을 구경하는 나를 지켜봐 왔으며 같은 해수욕장으로 놀러 가는 거겠거니 했단다.

“근데 저한테 말 거시길래 엄청나게 놀랐거든요. 영민 씨, 회는 이모가 공짜로 내어주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얼른 드세요.”



나는 그제야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고 뒤늦게 고소한 참기름향이 코로 들어온다. 접시에 코를 박고 회를 흡입하니 은숙 씨의 이모님께서 서비스도 연달아 내어주셨다.

“이래서 사람이 복 있게 먹어야 한다는겨! 잘 먹으니께 자꾸 주게 되자너~”

그렇게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 버스 시간이 다가와 가야겠다는 말을 남기고 긴 한숨 쉬며 멍하게 있노라니 그녀가 말한다.

“아까 보여준 책 있잖아요. 그거 쥐 봐요.”

책 속지에 뭔가를 끄적이길래 겉눈질로 훑쳐보니 뼈째 번호다. 망한 줄로만 알았던 내 헌팅이 나름 먹혔나 보다.

“연락해요.”

자기는 이모 집에서 하루 더 자고 간다고 아쉽지만 다음에 또 보자며 손을 흔들던 그녀. 입대를 일주일 남기고 만난 귀한 인연에 아쉬움 섞인 한숨이 절로 나왔다.

27개월 뒤 길었던 머리는 온데간데없이 파란 민둥 머리를 한 나는 무사히 군 복무를 마치고 드디어 사회에 나왔다. 그녀가 나를 기억할까? 번호가 바뀌진 않았을까? 혹시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찌지? 입대하면 다른 건 몰라도 부모님 사진은 압수 안 한다는 소리에 어머니 사진 뒤에 그녀의 뽀뽀 번호를 적고 군 시절 내내 그녀를 그리워했던만 연락하는 게 이렇게 망설여질지 몰랐다. 27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여전히 어리숙하고 떨떨한 남자애였다. 며칠씩이나 걸려 큰마음 먹고 그녀에게 보낸 뽀뽀. 다행히 회신을 받아 약속 장소에서 만난 그녀는 딱 한 마디로 나를 울렸다.

“말하고 다녀와도 기다렸을 텐데.”

짧은 머리, 검게 탄 얼굴을 보며 군대 갔다 온 걸 바로 알아차린 걸까. 거의 3년 만에 연락한 게 어처구니없을 법한데도 나를 반겨주는 얼굴에 눈물샘이 터져버렸다.

그렇게 우리 정식으로 연인이 되었고 1995년 봄 월세방을 구해 결혼식을 올렸다. 30년 가까이 같이 살면서 본 은숙 씨는 아니 나의 아내는 누구보다 멋진 사람이다. 명품 가방 하나 없지만 남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발라드 가수가 대히트를 하던 90년대에도 희은 누나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부르며 나를 감동시키는, 야간 근무에 무력해진 나에게 ‘여성시대’ 방송을 알려주며 세상 굴러가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라던 우리 아내. 세월이 많이 흘러 1991년 아내가 뽀뽀 번호를 적어준 그 골목에는 호텔이 들어섰지만 우리의 추억과 사랑만큼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걸 믿는다.

사랑 사랑 사랑

전하지 못한 진심

최명훈 | 경기도 수원시

얼마 전 오랜만에 아버지를 뵈러 고향인 부산에 다녀왔다. 아버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시 수원으로 돌아오기 하루 전날 밤 마지막으로 혼자 동네 산책을 하며 익숙한 길을 걸으니 잊고 있던 아련한 추억이 떠올랐다. 이 길을 수십 번도 넘게 함께 걸었던 그녀 생각이었다.

나는 초등학교 운동회 릴레이 계주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다. 나는 5학년 대표, 그녀는 6학년 대표였는데 내가 그녀에게 바통을 넘기자마자 주변에서 ‘와아아~’ 함성이 터져 나왔다.

“와, 저 누나 뭔데? 뭐 이리 빠르노? 우리 팀이 이기는 거 아이가?”

발이 안 보일 정도로 빨리 달리면서도 상체는 안정적으로 고정된 모습! 역시나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면서도 뭐 별일이나는 듯 쿨하게 자리로 돌아가는 포스! 하지만 기쁨을 숨길 수는 없었는지 해사하게 웃던 미소까지 모든 게 가히 충격적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 한

변 걸어보지 못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그녀의 얼굴과 그 아우라를 잊지 못했다.

그로부터 8년 후 대학교에 입학해 영어 실력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낀 나는 근처에 다닐 만한 영어 학원을 알아보던 중이었다.

“와~ 내 전공 서적 보는데 영어가 하나도 안 읽히데. 니 저번에 말한 그 어디고 남포동? 남포동에 학원 있다 안했나?”

“아~ 맞다. 내 아는 누나들도 다니는데 회화를 잘 알려준다고 하데. 함 가봐라.”

친구가 강력히 추천한 남포동의 모 학원. 개강일이 바로 내일이라고 고민할 새도 없이 학원에 접수하고 바로 다음 날 강의실에 들어서는데 나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다. 몇 년이 지나도 잊지 못한 그 6학년 계주 대표 누나가 훌쩍 자란 모습으로 강의실 제일 오른쪽 앞 줄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키, 옷차림, 자신에게 딱 맞는 화장까지 모든 게 초등학생 시절과는 달라졌지만 얼굴만큼은 그대로 자라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헬로우 에브리원~ 오늘부터 바로 셀프 인트로덕션을 해볼 거예요. 지금부터 텐미닛, 십분 줄 테니까 양옆 사람과 영어로 자신을 소개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무 살 최명훈이고요. 이 근처에 OO초등학교 나왔습니다.”

“반가워요. 스물한 살 이미주예요. 저도 OO초 나왔는데 우리 오가며 만났을 수도 있겠단.”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가볍게 뒤로한 채 우리는 한국어로 초등학교 얘기만 줄줄 나눴고 역시나 그녀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나 말 편하게 해도 되지? 명훈이, 너는 그럼 집도 이 근처겠네?”

“네, 여기서 걸어서 20분이면 가요.”

“맞나? OO초 근처면 나도 아직 그쪽에 사는 데 같이 가면 되겠다.”

‘하나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누나와 일주일에 두 번씩 귀갓길을 함께할 수 있었고 누나를 향한 나의 마음도 견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그날도 어김없이 우리는 자갈치 시장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익숙한 길을 걷고 있었다.

“근데 명훈아, 너는 여자친구 안 만나나? 우리 과에 진짜 예쁜 쿵카 있는데 시간 비는 날 말해봐. 내 소개해 줄게.”

“저 소개팅 싫어요. 아직 누구 소개 받기에는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맞나? 지금 아니면 연애 못 한다. 내도 곰신이지만 솔로보다는 낫거든.”

순간 머리가 멍~ 하고 울렸다.

‘남자친구가 있다고? 누나가 나랑 같이 산책하자길래 솔로인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가 군인이었던 말이야?’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끼며 나는 간절히 빌었다. 둘이 싸워서 헤어져라, 누나가 기다림에 지쳐 남자를 뺄 차버려라, 그 남자가 영원히 군대에 말뚝을 박아버려라! 하느님께 그렇게 빌었던만 그 바람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짧았던 여름이 다 지나 추운 겨울이 될 때까지 누나는 행복한 연애를 이어가고 있었다. 크리스마スイ브를 며칠 앞둔 12월 중순 영어회화반의 마지막 수업이 끝났다.

“에브리원~ 정말 고생 많았어요. 반년 동안 수고한 스스로에게 박수!”

“누나, 크리스마スイ브 날에 뭐 해요? 남자친구 만나세요?”

“글쎄 아직 휴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별다른 계획은 없어. 명훈이는?”

“누나 그러면 제가 종강 기념 선물로 줄 게 있어서요. 이브 날 저녁 여섯 시에 학원 앞으로 잠깐 나와 주세요.”

이쯤 되니 이판사판 고백이라도 해보겠다는 심산이었다. 나는 모아 두었던 과외비를 다 털어 그녀에게 줄 화장품과 장갑을 마련했고 크리스마스이브 날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학원 앞에 나와 달라는 말에 마지못해 웃던 누나의 표정을 간과했던 내 잘못일까. 크리스마스이브 날 아침 누나는 뽀뽀로 이렇게 소식을 전했다.

<명훈아, 오늘 남친이 휴가 나왔어. 그래서 못 나갈 것 같아. 그리고 나, 남친한테 미안해서 널 더 만나는 건 그만두려고.>

역시나 누나는 착한 사람이었다. 내 호의가 사랑임을 눈치채고 여지를 주지 않고 밀어낸 누나. 그런 누나를 더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혹시 누나가 학원에 들를 일이 있을까 싶어 학원 원장 선생님께 선물을 맡겨두었고 누나의 연락처를 지우며 내 사랑을 떠나 보냈다.

유일하게 남은 아쉬움이 있다면 내가 누나를 운동회 날 처음 봤었다고 그때부터 누나를 좋아해 왔다고 말해주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갑작스레 멀어질 걸 알았다라면 처음부터 누나의 어떤 점이 좋고 멋 있었는지 다 말해줄 걸. 누나와 걸었던 그 길을 떠올려본다.

여자는 모른다

맥가이버는 어디에

애청자

신혼 초, 거실에 형광등 불이 나가자 아내는 당연한 듯 나에게 형광등을 갈라고 했다. 나는 당당하게 말했다.

“나 태어나서 한 번도 형광등 갈아 본 적 없는데!”

아내는 어처구니없다는 듯 말했다.

“아니 무슨 남자가 형광등도 못 갈아?”

남자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낸 그 한마디. 나는 멋지게 형광등을 들고 갈아 끼우고 싶었지만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일 앞에서 곤욕이었다. 그런 나를 아내는 ‘이 인간이 제대로 하나 못하나’ 지켜보듯 팔짱을 끼고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등줄기에선 땀이 흐르고 팔은 아프고 목은 꺾일 거 같고, 결국 나는 형광등을 억지로 급하게 빼내다 박살을 내고야 말았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아내는 나에게 대한 기대가 쉽게 꺾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뭘 일만 있으면 나를 시켰고 그건 주로 수리나 교체 같은 일이었던 지라 그쪽에 영 재주가 없는 나는 늘 더 큰 하자로 보답하기 일쑤였다.

그날도 아내는 선풍기가 삐걱삐걱 소리가 난다며 손을 좀 보라고 했다.

“에이, 그거 얼마 한다고 그냥 새로 하나 사.”

“고쳐 쓸 수 있으면 고쳐서 쓸 때까지 써야지. 왜 자꾸 멀쩡한 걸 버리고 새로 사래.”

그러면서 아내는 친히 연장통을 가져다 내게 주었다. 그 연장통을 말할 거 같으면 지난 내 생일 때 ‘당신도 맥가이버가 될 수 있어~’라며 아내가 선물로 사준 것이다. 내 생일이면 나를 위한 선물, 내가 갖고 싶은 선물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 태어나서 단 한번도 탐해본 적 없는 연장통을 선물이라며 내미는 아내의 밝은 얼굴 앞에서 나는 어이가 없었다. 일단 연장통에 들어있는 드라이버로 선풍기를 분해한 후 니스 칠도 좀 새로 하고 다시 조립했다. 뿌듯했다. 나도 계속 하니까 이제 좀 품이 나나? 하며 기뻐하는 찰나 아뽀싸! 삐걱 소리만 나던 선풍기가 이젠 헤드뱅잉 하듯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하더니 한여름에 시든 시금치처럼 폭 고개를 떨구고 아예 못 쓰게 되어 버렸다. 아내는 나를 노려보며 쏘아붙였다.

“당신! 하기 싫어 일부러 그런 거지? 우리 아빠는 이런 건 누워서 떡 먹기였다고~”

특 하면 하늘나라 가신 장인어른을 소환해서 내 기를 팍팍 꺾는다. 장인어른이 손재주가 좋으셨던 건 인정한다. 하지만 세상 모든 남자가 장인어른 같은 맥가이버가 아니라는 걸 아내는 모른다. 손재주 좋으신 아버지만 보고 자라서 남자는 다 맥가이번 줄 안다. 장인

어른이 원망스러웠다.

또 한 번은 아내가 거실 중앙에 레이스 커튼을 달고 싶다고 했다. 나더러 커튼 봉을 달게 천장에 드릴로 구멍을 내라고 했다. 벽도 아니고 거실 천장에 구멍을 잘못 냈다가는 그 뒷감당을 할 자신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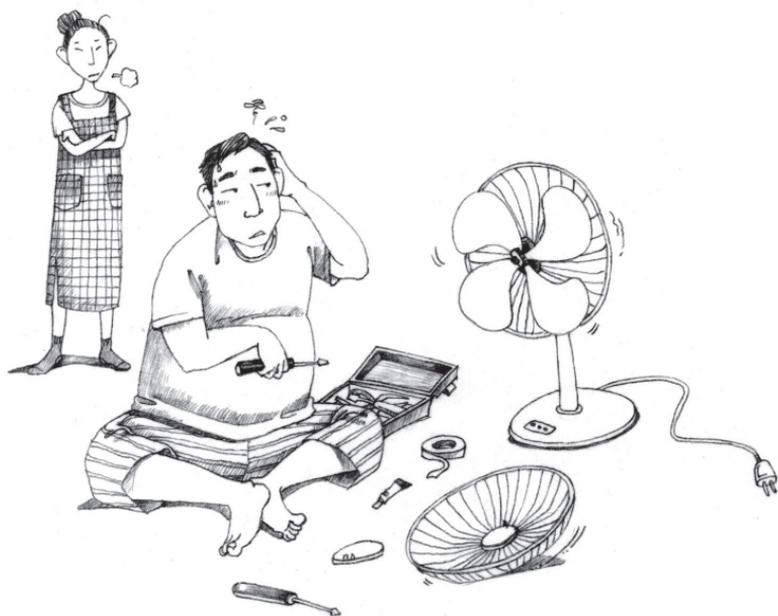
“그게 뭐가 어려워? 당신은 손만 갖다 대면 드릴이 알아서 다 구멍을 내 줄 건데, 그건 애들도 다 해.”

아내의 말을 들어 보니 처음 사용하는 드릴이지만 뭐 별로 어려울 게 없어 보였다. 나는 군인이 총을 메고 전쟁터에 나가듯 야심 차게 드릴을 들고 거실 천장을 향했다. 그리고 힘껏 힘을 줘서 구멍을 뚫었다. 정말 아내 말처럼 애들도 할 정도 어렵지 않았다. 앗, 그런데 나사가 구멍에 맞질 않는다. 내가 구멍을 너무 크게 뚫어버린 것이다. 나사가 자꾸 빠져서 커튼 봉이 달리지 않아 나는 다시 구멍을 뚫었다. 이번엔 수평이 맞지 않는다. 다시 뚫었다. 여전히 안 맞네. 다시 뚫었다. 그렇게 여기저기 한 방 두 방 뚫고 또 뚫다 보니 천장이 누더기가 되었다. 마치 밤하늘의 북두칠성처럼 거실 천장에 수놓은 크고 작은 구멍들. 아내는 빅뱅처럼 폭발했다.

“으이그~ 이 똥손!”

그 소리에 방귀대장 뽕뽕이를 가장 좋아하는 딸이 “흐흐흐~ 아빠 손이 똥이야? 까르르르르~” 넘어갈 듯 좋아했다. 그래 딸이라도 좋으면 됐지.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 비싸게 주고 산 청소기 분해해서 청소하러 기에 나는 그냥 손만 갖다 댔는데 부러지는 소리가 나더니 수리도 안 된다고 해서 아예 못 쓰게 된 적도 있고, 욕실에 선반 달려다가 욕실장이 내려앉아서 대공사를 하게 만든 일 등 나의 똥손이 해낸



일은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다.

이 정도면 아내도 포기할 만한데 여전히 아내는 옆집 친구 지인의 남편들이 맥가이버라는 이유로 남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쓸데없는 기대를 갖고 있다. 국민교육헌장에도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라고 나와 있거늘 사람은 각자 잘하는 게 따로 있고 그 소질을 계발해서 살면 되지 남자라고 해서 다 맥가이버일 수는 없다는 걸 아내는 언제쯤 알게 될까.

여보, 이제 제발 말겁시다. 약은 약사에게~ 고장이나 수리는 전문가에게~.

여자는 모른다

사랑도 통역이 필요해

애청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남성입니다. 여자친구와 사귄 때 특히 여자의 언어가 저는 어렵습니다. 그냥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귀찮으면 귀찮다 확실하게 말로 하면 되는데 늘 표정이나 분위기로 티를 내니까 이게 좋은 건지 싫은 건지 알아차리기가 힘들고 제가 예상 답안을 틀렸을 때의 후폭풍이 늘 두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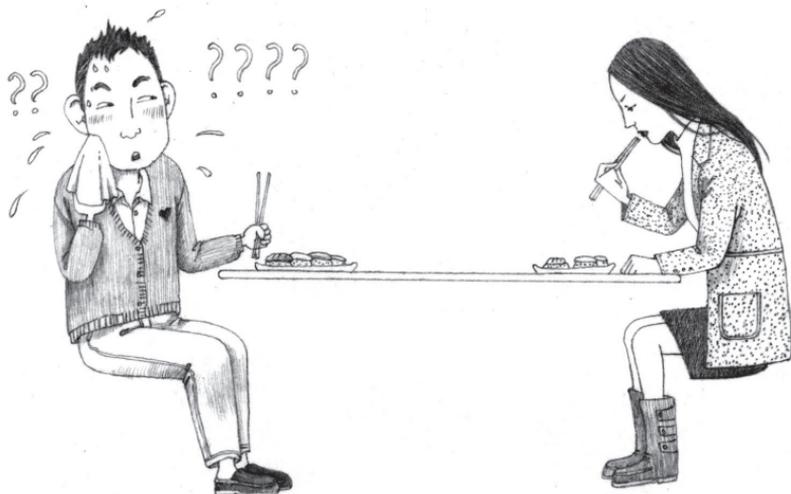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며 점심을 먹으러 가던 길이었어요.

“자기가 우리 오늘 뭐 먹을까?”

“저번에 갔던 그 명일동 김치찌개집 어때?”

“아, 거기 맛있던데 조금 비위생적이지 않아? 김치찌개 먹고 싶으면 천호동에 있는 그때 그 김치찌개집은 어때?”

“아~ 거기도 별로야. 오늘은 그냥 초밥 먹자.”



“초밥? 오키~ 좋아!”

저는 이렇게 대화가 잘 마무리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초밥 집에 들어간 순간부터 여자친구가 말수가 없더니 저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혹시 여자친구가 어느 부분에서 마음이 상했는지 여러분은 예상이 되시나요? 분명 여자친구가 처음 제시한 김치찌개집에 가지는 않았지만 저는 여자친구가 김치찌개를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다른 김치찌개집을 제안했고 그 집도 별로 탐탁지 않아 해서 결국엔 여자친구의 뜻대로 선택한 초밥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왜 그녀는 기분이 나빠진 걸까요?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를 받아든 기분으로 저는 초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먹다가 영화를 보러

했습니다. 깜깜한 극장 안에 앉으니 그때까지도 계속 뽀로통해 있는 여자친구가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먼저 물었어요.

“내가 뭐 실수한 거 있어? 왜 갑자기 기분이 다운된 거야?”

그러자 여자친구에게서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였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점을 자기가 아까 ‘비위생적’이라고 했잖아. 거기 내가 즐겨 가는 집인데 마치 내가 지저분한 것도 가리지 않고 잘 먹는 여자처럼 취급당한 기분이었다 말이야. 차라리 그 집 음식이 입맛에 안 맞는다고 돌려 말했다면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진 않았을 거야.”

그 순간 머리에 돌덩이를 맞은 것처럼 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들렸어요. 저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 한 전개였거든요.

지난겨울에는 주말에 뭐 할 거냐는 여자친구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친구들과 스키 타러 가려고 한다’ 했습니다. 그때도 표정이 급 안 좋아지기에 괜찮으나 물으니 정확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응, 괜찮아~ 나 신경 쓰지 말고 놀아~”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제가 스키장에 가 있는 동안 단단히 빼졌는지 전화, 문자, 카톡 아무것도 답장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여자들의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이 말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차라리 우리 집 강아지 몽실이의 언어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몽실이는 화가 나면 짹고 불편하면 짹짹대고 기분 좋으면 꼬리를 흔드니 말을 못 해도 어떤 상태인지 다 느낄 수가 있는데 여자의 마음은 정말 알 수가 없거든요. 여자친구의 표정, 말투, 어감, 분위기 통역해 주는 번역기가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자는 모른다

마음이 콩닥콩닥

애청자

내 나이 예순여섯! 아직 더 일할 수 있는 나이지만 결혼해서 내 밑에서 열심히 둘째 아들에게 자영업 일자리를 물려주고 더 나이 먹기 전에 생활비라도 벌 수 있는 뭐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충북 괴산에 마음에 든 땅이 있어서 매입하고 흔히들 말하는 '귀촌'을 한 지 이제 한 달 남짓하다. 간혹 나이 먹은 또래 친구들은 자기들도 그게 로망인데 참 대단하다고 부러워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꼭 과연 그러기만 할까?

별써 여러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시골 생활한 달여인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은 '외로움'이라 쓰고 '무서움'이라 읽겠다. 혼자 지낸다는 것! 사실 그건 나의 괴산 생활의 가장 큰 난제 중 난제다. 아내는 내가 이곳으로 전입하기 며칠 전부터 밤잠을 설치며 울먹였다.

“그냥 서류만 옮기는 거 아는데 괜히 기분이 이상하네. 당신이랑 내가 떨어져 사는 거 같잖아. 나는 당신처럼 매일 내려가 있을 수도 없으니까 사실 일주일에 5일은 떨어져 지내야 하는 게 맞기도 하고 당신 혼자 밥은 잘 챙겨 먹을 수 있겠어?”

처음엔 나 역시 실감 나지 않았으나 날이 다가올수록 혼자 지낼 것이 걱정되었다. 하지만 아내에게 말할 수가 없었다. 생각해 보면 40년의 결혼 생활 중 나 혼자만 단 하루도 없었다. 결혼 초에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때를 빼고는 잠시도 떨어져 지낸 적이 없다.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으니까 으이그~ 지켜워하고 뒤를 돌아보면 거기도 또 당신이 있어.”

“얼랴래! 아저씨~ 나도 마찬가지로든요. 으이그~ 지켜워~”

아내와 함께 자영업을 했던 터라 우린 정말 항상 함께였다. 그때 그녀가 이렇게나 소중한 줄 몰랐는데 괴산에서 혼자 밥을 보내려니 옆이 허전하다.

‘하나는 외로워서 둘이랍니다’ 어디선가 읽었던 글귀가 더더욱 실감 나는 밤. 괴산 집 앞에는 차도가 있어 집에 진입하기가 좋다고 그렇게나 자랑을 삼았었는데 가로등 없는 깜깜한 그 길이 밤이 되니 너무나 무섭고 낮에는 넓어서 좋다고 그렇게나 싱글벙글했던 마당이 밤에는 불빛 하나 없이 웅해서 또 너무 무섭다.

끼니때만 되면 늘 밥상 앞에 앉아서 주절대던 아내가 없어 혼자 차린 밥상에 김치 한 가지 놓인 식탁이 외롭기만 하고 다 먹지 못할 줄 알면서도 먹을 반찬이 없다며 한 상 가득 차려내던 아내의 잔소리가 그립다.

대충 혼자 때우고 잠자리에 누우면 또 옆이 얼마나 허전한지.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 팔만 뻗으면 아내가 있었는데 없으니 이상하다. 같



이 있을 때는 ‘단 하루만이라도 따로이고 싶다!’라는 말을 그렇게 아내 몰래 외쳐대곤 했는데 실은 아니었나 보다.

쉽게 잠이 오지 않는 밤, 소파에 몸을 기대고 지그시 눈을 막 감는데 며칠 전에 현관이 어두워서 달아놓은 센서 등에 갑자기 불이 켜지면서 현관이 환해진다. 뭐지 아무도 없는데.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에 불이 꺼지고 현관이 다시 어두워졌다. 그리곤 잠시 후에 다시 또

불이 들어왔다.

‘에? 뭐야! 아무도 없는 현관에 왜 불이 켜지는 거야? 혹시 이 야밤에 귀…귀신?’

갑자기 소름이 확 돋으면서 등골이 오싹해졌다. 아내가 있었다면 “잠깐 있어봐. 내가 나가서 보고 올게”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궁둥이 탁 털고 나가서 벌써 확인했을 텐데 혼자 있으니까 엉덩이가 꿈쩍하지 않는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래도 확인은 해보자 싶어 문을 삐꼼히 열고 막 나가려는데 다시 또 불이 들어온다. ‘헉! 어이쿠’ 나도 모르게 외마디 낮은 비명을 지르고서는 실눈을 뜨고 불빛 전구를 확인하니 야생 말벌 한 마리가 날아다닌다.

‘아, 너였구나.’

이 야밤에 말벌이 날아다니고 시골은 시골이다. 파리채를 들고 무슨 화풀이 하듯 휘둘러서 녀석을 잡아 놓고는 기진맥진 다시 집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는 순간 실실 새어 나오는 실없는 미소. 적지 않은 나이에 혼자 하룻밤 보내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긴장하면서 혼자 노는 내 꼴이 우스웠다. 시계를 보니 새벽 시간이라 아내한테 전화도 할 수 없고 이러저러한 생각들이 머리를 스친다. ‘남자도 혼자 하룻밤 내내기가 이렇게나 힘든데 젊은 나이에 졸지에 혼자가 되신 처형님은 그 수많은 날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싶고, 이렇게 약해진 내게 아내는 수시로 헐박 아닌 헐박을 해온다.

“이번 주는 애들이 뭘 좀 도와달라네. 다음 주? 다음 주는 당신 하는 거 봐서 같게.”

아내가 이렇게 나올 때마다 “당신 맘대로 하슈~” 호기롭게 말하지만 진짜로 안 오면 어찌지? 안절부절 마음이 콩닥콩닥한다. ‘곁에 있을 때 잘하자!’ 이 말이 새삼 실감 나는 요즘이다.

엄마의 흔적을 찾아서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우리로 치면 시골 향구라 할 수 있는 일본 돗토리현 요나고에 직항이 뚫려서 나는 거침없이 휴가 신청을 하고 그곳으로 향했다. 2015년의 기억이 떠올랐다. 모처럼 우리 세 자매가 엄마를 모시고 일본으로 여행을 떠났었다. 즐겁게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귀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으로 향하던 택시 안에서 엄마는 의식을 잃었다. 너무도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다. 택시에서 급히 119 요청을 했다. 그때 ‘이 나라 응급차는 30km로 달리는가?’ 싶게 아주 느리게 느껴졌었다.

공항에 이미 가 있던 희경을 병원으로 불렀다. 환자 가족으로 장시간 병원에 머무를 수는 없는 상황인데, 연말연시 일본의 큰 명절 탓에 어디에도 남아있는 객실이 없었다. 황당하기 그지없는 와중에 우리 같은 자유여행객에게 여행사는 정말 그럴 수 없게 여러모로 편의를 봐주었다.

더 황당한 것은 당시 나는 차고 있던 작은 썬 외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는 점(막내가 내 짐을 갖고 비행기를 탔고), 여



권과 카드, 휴대폰과 약간의 엔화가 전부였다. 긴박한 여러 통화 끝에 며칠간 머물 수 있는 숙소가 마련되었다. 그렇게 정신이 나간 중에도 어쨌든 운 좋게도 응급차가 데려간 듯토리 대학 부속병원이 심장내과로 유명하다는 걸, MBC 노익장 PD로부터 듣고 안심을 했다. 하지만 우리가 잠인들 잤겠는가? ‘엄마가 식물인간처럼 의식이 없으면 어쩌나? 어떤 모습일까? 우리를 알아볼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이었다.

이튿날 중환자실로 옮겨진 엄마를 만나는 순간, 온통 이런 저런 관을 몸에 달고 통유리창 안에서 환히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고맙기만 했다. 의사는 엄마가 그동안 복용한 약 처방전을 부탁했고, 역시 여행사의 주선으로 어떤 주부로부터 조카가 건네준 처방전을 공항에서 전해 받았다.

그날 우연히 공항에서 만난 복미 씨는 그야말로 천사였다. 그 덕에 갈아입을 옷도 사고 빨래하러 그 집에 방문해 영혼의 음식인 그댁 모친의 밥상을 받았다. 평생 먹은 음식 중 최고, 최고였다. 엄마의 회복과 더불어 복미 씨 모녀분이 서울에 올 때마다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그댁 모친께선 활기차고 웃음이 많으셨다. 복미 씨 아들 둘까지 함께했던 몇 해 전 수산시장에서의 저녁은 백미 중의 백미였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고, 3년 동안 찾아뵙지 못하다가 이번에 찾아뵈었는데 희경이 마련한 울릉도 말린 나물과 돌미

역, 내가 준비한 우리 차와 참기름, 들기름, 볶은 깨 등을 트렁크 가득 채워 갔었다. 여전히 건강하셨다.

하룻밤 자고 엄마의 흔적 따라 이와미긴잔의 군겐도까지 가올여행을 했다. 하루 두 번 오는 신야마구치행 기차를 타기 위해 그곳에서 옛날식 계단을 오르며 9년 전 엄마의 모습을 기억했다. 엄마가 그렇게나 좋아했던 오다시의 군겐도. 엄마는 떠나고 모든 건 다 그 대로였다. 흔들리며 달리는 옛날식 기차 안에서 내내 엄마를 생각했다.

“전조증상이 없다는 심부전증 발작이 두 번째로 나타나면 그때는 어머니의 건강을 보장 못 한다, 어려울 거다.” 의사의 말대로, 또 본인의 소원대로 그렇게 주무시다 떠나셨다.

이번 휴가는 엄마의 흔적을 찾아가는 여행이었고, 신세 진 분들께 감사 표시를 미루지 않겠다는 실천이었다. 다시 오겠다는 약속대로 겨울엔 복미 씨 모친이 좋아하시는 우리 떡을 가득해서 찾아뵈어야지.



속 깊은 이야기

김일중 | 여성시대 진행자



오늘은 나의 아주 깊은 속내를 드러내려 한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속은 아주 썩어있는, 얼굴 찌푸러지는 그런 이야기. 일종의 커밍아웃. 바로 내 입안 충치 이야기다.

다행히도 난 웃을 때 드러나는 앞니의 치열은 고르고 반듯하여 튼튼해 보인다. 하지만 입을 열면 상황은 전혀 다르다. 양쪽 위아래 어금니 대부분이 때워져 있거나 금니로 덮여있다. 초등학교 시절 새 나라의 어린이답지 않게 양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충치가 많이 생겼다. 이가 콧속 찌시고 아파 울면서 치과에 갔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다.

보통 감기나 열이 있어 소아과에 갈 땐 울지 않았다. 거기 계신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그래도 금방 낫는 거 같고 열이 내렸으니까. 하지만 치과는 달랐다. 아파서 찾아간 병원인데 그곳에 가면 더 아팠다. 입을 계속 벌리고 있는 것부터가 힘들고 무섭다. 보통 우린 긴장되거나 무언가 두려울 때 입을 양다물고 경계하지 않는가. 하지만 그런 내 속도 모르고 내 입속을 온전히 맡겨야 한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치료 도구들이 내 입안에서 촉각으로 다가오기 전에 이미 청각으로 반쯤 기절시킨다. ‘크흐!!!!’ ‘셔어억!!!!’ ‘지잉!!!!’ 한 주먹도 안 들어가는 내 입

안에서 도로에서나 들던 공사판 소리가 펼쳐진다. 이미 온몸은 바짝 경직된 상태다.

하지만 긴장을 풀기 위해 두 손을 맞잡고 있을 수도 없다. 언제든 참기 힘들면 왼손을 들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기에. ‘잉!!!’ ‘치쳐칙!’ ‘우악!!!’ 잇몸 깊은 곳부터 시큰! 찌릿! 결국 왼손을 든다.

“조금만 참아요~ 다했으니.”

그렇다. 왼손을 들어도 전혀 달라지는 건 없다. 그저 내 참을성의 한계를 들켜버린 표시일뿐. 그 뒤론 찌릿하고 시큰거려도 손을 들지 않는다. 다만 온몸이 저절로 움찔거린다. 그렇게 움찔과 경직으로 몸이 지쳐갈 때쯤 치료도 끝이 나고 드디어 물로 입을 헹군다. 이 순간이 너무도 개운하다.

그렇게 어른이 되고 또 한참 어른이 되니 양쪽 어금니들 사이에 충치가 피어났나 보다. 또다시 치과를 찾아야 했다. 여전히 늙기 전 내 옆으로 펼쳐진 치료 도구들이 무섭고 소리는 요란했지만 이제 제법 머리가 커졌나 보다. 치료를 받는데 참을 만하다. 그 통증과 공포를 분산시키는 요령이 생겼달까. 어린 시절엔 온몸의 모든 신경을 치아에 집중했었다면 이젠 치아를 제외한 내 몸의 다른 촉각을 느껴본다. 운동화 속 발가락부터 손끝, 팔꿈치 어디든 좋다.

그리고 어차피 가려진 눈을 감으며 생각한다. ‘우리 선생님들 고생이 많다. 하루 종일 이렇게 입안을 쳐다보고 있어야 한다니 참...’ 그렇게 보이지 않을 속내를 감추며 입안을 맡기다 보면 어느샌가 치료가 끝이 난다. 맞난 음식 많이 먹으려면 치아 관리 잘해야겠다.



IBK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드는 새로운 세상

기업은행의 가치성장 프로젝트

IBK UP TOGETHER

아티스트 발굴에서 스포츠 지원까지

IBK기업은행은

아직 세상이 알아보지 못한 가능성의
제1호 팬이 되어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이름이 빛나는 그날을 위해

IBK기업은행의
**BOOM
UP**

너의 가능성
이제, 빛날 일만 남아 있어

신진작가 창작 및 전시지원
[IBK 아트스테이션]

발달장애 작가 육성 프로젝트
[IBK 드림윙즈]

사격, 여자배구, 태권도, 레슬링, 역도 등
[대한민국 스포츠발전 후원]



IBK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기업은행이니까 유연도 믿고 맡깁니다

지난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고객과 기업 곁을 지켜온

IBK기업은행

그 변치 않는 믿음을 알기에
인생의 마지막, 소중한 유산까지
맡기고 싶습니다

믿음직한 상속으로 내 뜻을 지켜주는
IBK 내뜻대로 유언대용신탁



믿을 수 있는 국책은행

63년 역사의 국책은행으로
장기간 신뢰할 수 있는 계약관리



내뜻대로 상속설계

내 재산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춤형 상속 설계



간편한 신탁계약

형식이 엄격한 유언장 대신
신탁계약 체결만으로 유사 효과



안정적인 상속집행

신탁 전문가와 함께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상속 집행

기업은행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2024-5979호(2024.10.15) 유효기간(2025.10.14),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4-04197호(2024.10.16~2025.10.15)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 (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는 금융상품(신탁계약)에 대하여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자산가격 변동, 시장금리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IBK 내뜻대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도 민법의 유류분 청구권이 보장됨에 따라 유류분 침해나 반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의 기본계약보수는 신탁원본의 0.5%, 집행보수는 신탁원본의 0.2~0.8%, 운용보수는 운용자산별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